

온누리교회는 하용조 목사가
1985년 10월 6일 창립한 사도
행전적 '바로 그 교회'입니다.

온누리신문

- 성경 중심의 교회
- 복음 중심의 교회
- 선교 중심의 교회
- 긍휼을 베푸는 교회
- 그리스도 문화를 심는 교회

창간 1994년 4월 3일

news.onnuri.org

2017년 10월 1일(주일) 제1166호

2017 나라와 민족을 위한 부흥집회

ReFORM

10월 24일부터 26일까지 서빙고 온누리교회 본당
강사 스카이 제서니 목사, 이재훈 목사, 유기성 목사

‘2017 나라와 민족을 위한 부흥집회’가 10월 24일
부터 26일까지 서빙고 온누리교회 본당에서 ‘
ReFORM’을 주제로 막 오른다.

2017 나라와 민족을 위한 부흥집회에서는 총 8개 집
회와 토크쇼가 진행된다. 나라와 민족의 위기를 기도
로 극복하기 원하는 온누리교회 성도라면 누구나 신
청할 수 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한 부흥집회는 3일 동안 진행된다.
부흥집회 첫날에는 ‘나를 새롭게’를 주제로 오전, 오후,
저녁집회가 열린다. 둘째 날에는 ‘교회를 새롭게’
를 주제로 오전과 저녁집회가 이어진다.

셋째 날에는 ‘세상을 새롭게’를 주제로 오전, 오후,
저녁집회가 진행된다. 10월 25일 오후에는 강사와 함
께하는 ‘Q&A 토크쇼’가 펼쳐진다. 나라와 민족을 위
한 부흥집회의 모든 저녁집회는 누구나 참석할 수 있

는 오픈집회이다.

2017 나라와 민족을 위한 부흥집회의 강사는 스카
이 제서니 목사, 이재훈 담임목사, 유기성 목사(선한목
자교회)이다. 스카이 제서니 목사는 24일 오전과 오후
집회, 25일 오전집회, 26일 오전, 오후, 저녁집회, 이재
훈 담임목사는 24일 저녁집회, 유기성 목사는 25일 저
녁집회에서 메시지를 전한다.

스카이 목사는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젊은 지도
자 중 한 사람으로 꼽히는 인물이다. ‘크리스치너티
투데이’에서 온라인으로 발행하고 있는 <리더십 저
널>의 편집장을 역임했다. <하나님을 팝니다>, <With>, <하나님의 도사> 등의 저서가 있다(관련기사
10면).

참가신청은 온누리교회 홈페이지와 각 캠퍼스 목회
행정실에서 하면 된다. 회비는 오늘(1일)부터 22일(주

일)까지 등록하면 1만 원이고, 당일 등록은 2만 원이다.

부흥집회 기간 동안 서빙고와 양재 온누리교회에서
진행되는 스쿨은 휴강하지 않고 부흥집회 참석으로
대체된다. 스쿨에 참여 중인 성도는 회비가 1만원이
다.

부흥집회 본부측은 “이번 부흥집회는 10월 21일 끝
나는 ‘나라와 민족을 위한 40일 릴레이 금식기도’에
서 멈추지 말고 나라와 민족을 위한 중보기도를 계속
이어가자는 의미에서 준비했다”면서 온누리교회 모
든 성도들에게 “큰 위기에 직면한 나라와 민족을 위
하여 뜨겁게 부르짖는 기도의 장으로 나와달라”고 당
부했다.

홈페이지: www.onnuri.org

문의: 02-3215-3355



/ 정현주 기자 joo@onnuri.org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기 운동

말씀으로 거듭나고, 말씀과 가까워지는 방법 제안
온누리 성경 읽기표, 드라마 바이블 앱, 개인 성경책 지침

온누리교회가 종교개혁 500주년과 교회
창립 32주년을 맞이하면서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기 운동을 실천하기로 결정하고 성
도들에게 말씀으로 돌이켜 거듭나고, 말씀
과 가까워지는 3가지 방법을 제안했다.

첫째, 성경읽기다. 오늘 주보 간지에 함께
배포된 ‘온누리 성경 읽기표’(책체인 방식)
에 따라 온가족이 함께 성경본문을 읽으면
된다. 온누리 성경 읽기표를 따라 읽으면 1년
에 구약 1독, 신약과 시편 2독을 할 수 있다.

둘째, 주일예배와 순예배에서 ‘드라마 바이
블 앱’을 활용한 성경읽기가 시작된다. 드라
마 바이블 앱은 스마트폰으로 성경 66권을
생생하게 들을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이다.

오늘부터 순예배를 드릴 때는 온누리 성
경 읽기표 해당 날짜의 본문을 순식구가 구
약 1장, 신약 1장을 선정해서 읽고 시작해야
한다. 주일예배에서는 영상을 보며 성경을
읽은 다음 예배를 시작한다.

셋째, 주일예배에 올 때 반드시 개인 성경

책을 지참해야 한다. 그동안 교회는 성도들
의 편의를 위하여 성경을 봉독할 때 화면으
로 자막을 보여줬는데 오늘부터는 제공하
지 않는다. 반드시 개인 성경책을 지참해서
직접 읽어야 한다.

한편 오늘 교회 창립 32주년 기념주일을
맞아 성도들에게 국수와 떡을 대접한다. 서
빙고 한식당에서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까지,
구 골프연습장에서 오후 2시 30분까지
국수를 나눠준다. 양재는 1부 예배를 드린
후부터 3부 예배 끝날 때까지 지하식당에서
국수를 나눠주고, 그 이후에는 떡을 나눠준
다.

/ 정현주 기자

오늘은 대중교통 이용하는 주일

스티커 발부 받은 차량만 이용

오늘(10월 1일)은 사회선교부에서 주최하는
행복한 불편함 캠페인 ‘대중교통 이용하는 주
일’이다. 온누리교회 모든 성도(양재 캠퍼스
제외)들이 대중교통 이용해서 교회에 오는 날
이다. 오늘 교회주차장은 사전에 스티커를 발
부 받은 차량만 이용할 수 있다.

장애인, 75세 이상 어르신, 임산부, 36개월 이
하 자녀 동반, 10세 미만 자녀가 3명인 차량에
게만 교회주차장 이용 스티커를 발부해 준다.

/ 김영선 기자

* 다음 주일(10월 8일) 신문은
추석 연휴로 휴간합니다.

기획_ 명절 스트레스 극복하기 4면

절기_ 추석 추모예배 5면

전문가 칼럼_ 정신장애인에 대한 낙인 9면

이슈진단

판사가 제안하는 소년법과 어른들의 역할

소년법 형사처벌 강화가 해결책이 아니다

청소년 범죄로 온 나라가 시끄럽다. 피투성이가 된 피해학생들의 끔찍한 모습이 시민들의 공분을 샀고, 일각에서는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저지른 행위에 비해 너무 약하게 처벌하다보니 청소년들의 범죄가 날로 흉악해진다면서 청소년이라도 강력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소년법을 개정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그들의 주장대로 청소년이라고 해도 저지른 범죄 정도에 따라 강력하게 처벌을 해야 할까 아니면 또 다른 대안을 찾아야 할까. 소년법원에서 청소년 범죄를 담당했던 문선주 판사(서울지방법원)가 ‘소년법과 어른들의 역할’을 주제로 글을 보내왔다.

/ 편집자 주

계속되는 여중생들의 무자비한 폭력으로 사회가 한숨짓고 있다. 14세에 불과한 소녀들의 입은 강패처럼 거칠었고, 작은 손은 무엇이든 집어서 폭행에 사용할 만큼 난폭했다. 피해학생이 겪은 육체적 상처와 정서적 모멸감은 상상하기 어렵다. 피해학생의 부모가 겪었을 참담함이 전해져 온다. 피해 소녀는 우리 조카딸 같고, 가해 소녀들은 주변에서 도저히 찾아볼 수 없는 괴물인 것만 같다. ‘어쩔 어린애들이 저럴까’ 싶은 마음에 저주를 퍼붓기도 한다.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고 있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눅 23:34).

십자가 위에서 극악무도한 무리를 내려다 보시면서 하나님께 용서를 간구하는 예수님의 모습이 떠올라 숙연해진다. 소녀들이 얼마나 방치되었기에 저렇게 끔찍한 일을 저지르게 되었을까? 그 아이들은 무엇을 보고 자랐을까? 그 아이들도 어른들을 보고 자랐다.

‘애가 공부는 잘할까?’라는 표정으로 아이들을 판단하고, 돈 없고, 못생기고, 힘없고, 무지한 사람을 무시하는 어른들의 행태가 고스란히 아이들에게 전달된다. 부모의 방임 혹은 잘못된 교육이 아이들을 병들게 한다. 부모도, 선생님도, 사회도, 모두 무능한 아이에게는 희망과 사랑을 전해주지 않는다. 최근 소년법 개정 논의도 이러한 어른들의 마음과 연장선에 있다. 언론은 일어난 사건을 적나라하게 보도해서 가해 소녀들에 대한 분노를 고조시키고,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어른들의 분노에 만족감을 준다. 수많은 어른들이 “내 자녀는 순진하고 귀해서 어떻게든 보호해야 한다”고 외치면서 보여주는 비인격적인 잣대와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모습이 가해 소녀들에게 그대로 투영되어 있다.

현행 청소년 범죄 처벌 제도

소년 강력범죄가 일어날 때마다 강력한 형사처벌의 필요성이나 14세 미만의 범죄에 대해서도 형사처벌 해야 한다는 주장이 빠지지 않고 등장한다. 그런데 이미 청소년 범죄는 죄의 경중에 따라 차별화된 방식으로 다루지고 있다. 보호처분(장기 소년원 송치, 장기 보호관찰 등의 처분)의 근거가 되는 소년법은 19세 미만에게 적용된다. 형사책임 능력자인 14세 이상은 1차적으로 검사에 의해 소년법 또는 형법 법령의 적용 여부가 결정된다. 이를 법원에서 2차적으로 다시 검토한다. 소년법을 근거로 법원에 송치된 사건도 범행의 죄질, 결과의 중대성, 반성의 태도, 가정환경 등에 따

라 형사사건으로 이송하여 형사처벌하고 있다. 따라서 현행법에서도 14세 이상의 소년법은 얼마든지 형법 법령에 따른 처벌이 가능하다. 단지 미성년이라는 특성에 따른 일정한 제한(18세 미만 사형 금지, 부정기형의 선고 등)이 있을 뿐이다. 또한 소년법은 이미 2007년 개정을 통해 소년법에 의한 보호처분의 대상을 12세 이상의 소년에서 10세 이상의 소년으로 하향시켰다. 한편 14세 이상에 한하여 형사책임을 부과하는 것은 형법에 정해진 원칙이다.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하고, 그에 따른 책임까지 부담할 수 있는 능력을 나이 기준으로 규정한 것이다. 형법 개정을 통해 그 기준을 낮추더라도 이러한 능력의 유무를 고려하여 신중하게 개정되어야 한다. 또한 앞에서 밝힌 기준들에 따라 소년법 또는 형법 법령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것이므로 형사책임 능력자의 연령을 14세 미만으로 낮춘다고 하더라도 형법 법령이 적용될만한 소년법은 극히 제한적이다.

소년재판부에서 근무했던 3년 동안 일 년에 3천 건 이상의 소년 사건을 검토했다. 그 중 결과가 중한 사건이나 강력 범죄는 이미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소년재판부에서는 거의 찾아볼 수 없었다. 소년부에 송치된 14세 미만 소년의 범행은 대부분 아동학대나 방임으로 인한 생존 범죄였다. 예를 들어 가출 상태에서 야간에 문 열린 차량에서 동전을 훔치는 범행이거나 편의점 절도, 휴대폰 절도 등이었고, 일부는 지위비행, 즉 학교부적응 등으로 야간에 부모 몰래 외출해서 오토바이 절도, 무면허 오토바이 운전 등을 하거나 가출하는 것이었다.

사건에 따라서는 소년재판부가 형사재판부보다 범행의 경중에 비해 무거운 처분을 하기도 한다. 소년보호제도의 취지에 따라 청소년의 성격 및 행동의 개선과 재범 방지를 위해 향후 죄를 범할 우려가 있는 징후를 비중 있게 검토하기 때문이다. 해당 청소년의 품성과 환경을 고려하여 가벼운 범행에 대해서 의외로 장기 소년원 송치 처분을 하기도 한다. 이를테면 소년법에 의하면 정당한 이유 없이 가출하는 소년이 가정환경, 현재의 성격 및 태도 등에 비추어 재범이 예상된다면 장기 소년원 송

치 처분을 하는 것이 가능하다.

소년보호제도의 실질화가 핵심

당장 개선이 시급한 것은 형사처분과 관련된 법률 개정이 아니다. 소년보호제도의 실질화가 핵심이다. 소년법의 입법 목적은 미성숙한 청소년의 환경과 성행을 개선해서 청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것이다. 이를 위한 실질적인 기반이 얼마나 마련되어 있는가에 따라서 제도의 존재 의의가 결정될 것이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금까지 법원이나 법무부의 시설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은 극히 제한적이고 그 효과도 미미했던 것이 사실이다.

국가는 특별히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가진다(헌법 제34조 제4항). 이는 청소년이 국가의 보호대상을 선언하는 것이고, 소년보호제도도 이에 부합하는 제도다. 국가가 이를 제대로 시행하지 않으면서 특정한 아

이들이 형사처벌을 받을만한 심각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해서 아이들에 대한 형사처벌 강화를 유일한 해결책처럼 제시하는 것은 위험하다. 자칫하면 국가가 헌법상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것을 국민

들이 방조하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 죄를 범한 청소년이 소년보호제도를 통해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진정한 사회 안전과 통합을 이루는 핵심적 목표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현행 소년법에 대한 보호관찰은 법무부 산하 보호관찰소에서 이루어진다. 보호관찰대상자인 소년들을 면담해보면 성인에 대한 보호관찰이 이루어지는 보호관찰소에 출석해서 감독을 받는 것이 이들의 품행의 개선까지 이어지기보다 최소한의 감시·감독에 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청소년에 대한 독립적인 보호관찰기관과 프로그램 마련이 시급하다. 또한 전국에는 8개 남자소년원과 1개 여자소년원, 1개 분류심사원이 운영되고 있는데 대부분의 소년원이 과밀하고 노후된 채 오랜 기간 운영되었다. 최근 몇 년 동안 그 시설을 개선하고 있는 형편이다. 그 밖에 품행개선에 중점

을 두고 개별 처우하고자 노력하는 민간운영 구급시설은 5개 소규모 시설에 불과하다. 이마저도 재정과 시설이 열악한 형편이다.

소년법에 의하면 소년보호처분의 집행 및 감독기관은 법원이다. 그런데 이를 성인에 대한 형벌 집행을 담당하는 법무부에서 관리해서 소년보호처분 본연의 취지에 따른 집행이 어려운 실정이다. 소년재판부에서는 거의 대부분의 소년법에 대해 가정환경, 성격과 행동 등 재범 가능성을 조사하고, 필요한 경우 정신과 진단, 심리검사 및 상담까지 시행한 후 보호처분을 한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개별적인 보호처분의 집행과 감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앞으로 소년법원 등을 설치해서 소년보호제도를 실질화 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미국은 형사처분과 구별되는 소년법을 입법하고, 1917년 이미 3개 주를 제외한 모든 주에 소년법원을 설립하였다. 1945년에는 연방법원을 포함한 모든 주에 소년법원이 설치되었다. 이러한 소년법원은 청소년 범죄자들의 경생에 목표를 두고 있다.

나는 수없이 소년재판을 하면서 소년법을 포함한 미성년자들이 우리 사회의 소수자이자 약자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자기 아이들은 귀하게 여기면서 교육제나 사회제도는 어른들의 편의대로 결정하고, 이를 강제하는 경우가 많다. 아이들의 어려운 사정, 도움이 필요한 영역에 관심을 가지는 어른들이 정말 귀하다.

“이 작은 사람들 가운데 한 명이라도 업신여기지 않도록 조심하라. 이 어린아이 중 한 명이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다”(마 18:10, 14).

어른들은 늘 연약한 자를 돌아보신 하나님의 마음으로 소년 범죄를 바라봐야 한다. 부모와 사회로부터 업신여김을 당한 경험이 인생의 전부인 아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따뜻한 말 한마디다.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전하는 것만이 참된 해결책이다. 돌아온 탕자 비유처럼 아이들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 눈물을 흘리며 회개할 수 있도록,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삶을 계획할 수 있도록, 그들을 예수의 사랑으로 꾸짖고 안아줘야 한다. 잃어버린 한 영혼을 돌보는 어른들의 사랑을 기대한다.



문선주 판사
(서울지방법원, 사회선교부)





주일강단



박종길 목사

종종 원하지 않는 광야생활을 할 때가 있습니다. 자신의 실수나 욕심으로 인해서 광야생활을 할 때도 있지만 억울하고 이해할 수 없는 상황 때문에 광야에서 시간을 보낼 때도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나 이유에서든 광야생활은 힘이 들고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또 다른 면에서 광야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나 자신의 약함과 부족함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를 고백하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다윗은 사울 왕을 피해서 엔게디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엔게디’라는 말은 ‘새끼 염소의 샘’이라는 뜻입니다. 사해의 서쪽, 쿨란의 남쪽에 위치한 성읍으로 ‘사해 옆에 있는 작은 오아시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곳에서부터 270미터 정도 가게 되면 높이가 약 600미터 되는 깎아지른 절벽이 나오고, 그 위에 넓은 고원이 펼쳐져 있습니다. 그 고원과 절벽의 심한 침식으로 고립되어 복잡한 동굴과 협곡들을 형성하고 있는데 그곳을 ‘엔게디 광야’라고 부릅니다. 광야는 다윗이 선택한 곳이 아닙니다. 그의 인생이 끝나는 곳도 아닙니다. 그렇지만 다윗에게 광야는 의미가 있는 장소입니다.

내가 선택한 광야는 아니지만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러 나갔다가 돌아온 사울은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그러자 사울은 온 이스라엘에서 뽑은 3,000명의 군사들을 이끌고 다윗과 그 일행들을 찾기 위해 들염소 바위 근처로 갔습니다”(1~2절).

다윗은 그를 따르는 부하 600명과 함께 이곳저곳을 옮겨 다녔습니다. 어떤 때는 광야의 요새에 머물기도 하고, 심 광야의 언덕에 있기도 했습니다. 사울 왕은 집요하게 다윗을 추격했고 사울을 두려워한 심 사람들의 고발로 다윗이 큰 위기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울의 위협으로부터 다윗을 구해주셨습니다. 이제 다윗이 조금 더 안전한 엔게디 광야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 소식을 들은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뽑은 정예군대 3천 명을 동원해서 다윗을 찾아오게 됩니다. 다윗이 있는 동굴까지 다다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광야는 다윗이 선택해서 간 곳이 아니었기 때문에 더 힘들고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다윗은 사울 왕의 추격을 피하기 위해서 광야로 달아났습니

다. 분명 광야는 다윗에게 고통스럽고 힘든 곳이었지만 의미 있는 장소가 됩니다.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다윗을 광야에 있게 하셨습니다. 사울에게 쫓겨 다니고 힘든 시간을 보내지만 하나님은 다윗을 광야에 있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지 않았지만 위협과 고통과 어려움이 있는 광야를 만나게 됩니다. 지금 이 나라의 상황이 그렇지 않습니까. 원하지 않았지만 광야와 같은 어려움, 위험, 고통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는 그저 그런 장소나 상황일지 몰라도 나에게는 광야와 같은 시간이고 상황이 주어질 수 있습니다. 억울하게 당해야만 하고 견뎌야만 하는 광야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광야를 대하는 태도를 통해서 내 삶의 소중함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의도가 있습니다.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의 뜻과 의미와 계획을 찾아야 합니다. 광야는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또한 광야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광야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고백하게 합니다. 내가 건강할 때는 보이지 않았던 하나님, 내가 승승장구할 때는 찾지 않았던 예수님, 내가 형통할 때는 사모하지 않았던 성령님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시간이 광야입니다. 광야는 하나님을 찾게 하는 도구이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지금 광야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그 광야가 원망과 불평의 시간이 아니라 겸손과 감사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광야는 하나님을 선택하는 장소

“사울은 길가에 있는 양 우리에 이르러 왔습니다. 그곳에는 동굴이 하나 있었는데 사울이 용변을 보려고 거기 들어갔습니다. 그 동굴 안쪽에는 다윗과 그의 일행이 숨어 있었습니다. 다윗의 부하들이 말했습니다. ‘오늘이야말로 여호와께서 ‘내가 네 원수를 네 손에 넘겨주어 네 마음대로 하도록 하리라’라고 말씀하신 그날인가 봅시다.’ 그러자 다윗은 살그머니 기어가 사울의 겹옷 한 자락을 잘라냈습니다. 다윗은 사울의 옷자락을 잘라 낸 것조차도 마음에 걸렸습니다”(3~5절).

사울 왕이 어처구니없게 위험한 순간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다윗과 그의 군대가 그 안에 있는데 사울 왕은 혼자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용변을 보러 갔기 때문에 갑옷과 무기를 벗고 갔을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을 다녔는데 지금은 다윗이 사울을 공격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

엔게디 광야

사무엘상 24:1~7

“광야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선택하는 곳이고,
나의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장소입니다.”

다. 다윗의 부하들도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며 다윗을 부추깁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사울의 겹옷을 잘라내고 나중에는 그것조차 마음에 걸려합니다.

사울도 다윗도 광야에 있었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광야로 달려갔습니다. 오직 살인만 생각했습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쫓겨 원하지 않게 광야로 들어갔지만 그 광야가 하나님의 피난처라고 고백했습니다.

“오 하나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영혼이 주를 신뢰하오니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 재난이 지나갈 때까지 피할 것입니다. 내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나를 위해 무엇이든 하시는 하나님께 울부짖습니다”(시 57:1~2).

다윗은 사울 왕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권력이나 힘은 자기를 위해 쓰려고 준 것이 아닙니다. 재물이나 건강도 자기를 위해서 쓰려고 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해서 우리는 진실로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다윗은 은밀한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그의 마음을 은밀하게 유혹하는 사탄의 소리를 거부하고, 하나님이 주신 원리를 따라갔습니다. 분명 광야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의미가 있습니다. 사울이 홀로 들어와 용변을 보는 장면은 다윗으로 하여금 사울 왕을 죽이려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다윗의 믿음과 인내를 하나님이 테스트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다윗은 그 상황을 부하들과 다르게 보았습니다.

여러분, 광야는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선언하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상황이나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중요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선택했고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장소

“다윗은 자기 부하들에게 말했습니다. ‘내 손을 들어 여호와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내 주인을 치는 일은 여호와께서 금하신 일이다. 그는 여호와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이다.’ 다윗은 이런 말로 자기 부하들을 나무라며 그들이 사울을 공격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사울은 동굴을 떠나 자기 길로 갔습니다”(6~7절).

광야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입니다. 특별히 하나의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장소입니다. 사울은 원수로 보였습니다. 반드시 죽여야 하는 경쟁자로 보였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울을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신의 주군으로 보았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의 감정과 결정에 집착했지만 다윗은 인간적인 기회와 유혹보다 하나님의 뜻과 자신의 신앙을

분명하게 고백했습니다.

광야는 위험과 죽음을 직면하는 곳이지만 어떤 입장과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곳이 됩니다. 다윗은 사울을 해하지 않았고, 선대했고, 사울의 생명을 귀중하게 여겼습니다. 다윗은 부하들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자기를 확대하는 자를 선대했고, 하나님의 선을 나타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다윗을 지켜주셨고 그를 기뻐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광야에서 나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지켜주는 것은 무기가 아닙니다. 경제력, 군사력, 외교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은 네 발을 미끄러지지 않게 하시리라. 너를 지키시는 그분은 졸지도 않으시리라.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그분은 졸지도 않고 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신다”(시 121:3-4).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이 나라를 지키시되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십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 엎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을 선택해야 합니다. 다윗은 광야생활 중에서도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어쩌면 광야는 다윗의 믿음을 시험하는 장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윗은 시험을 잘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사울을 살려준 사건은 육에 대한 영의 승리를 의미합니다. 죄에 대한 은혜의 승리를 의미합니다. 우리에게도 은밀하게 다가오는 유혹이 생깁니다. 성급함과 조급함으로 하나님의 신실함을 의심하는 불신앙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성실하고 완전한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망하십시오. 은혜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임을 선포하십시오. 다윗이 하나님을 피난처로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광야를 쉽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그곳은 위험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광야를 회피해서는 안 됩니다. 그곳은 참 하나님을 만나는 경이로운 곳이기 때문입니다. 광야가 어렵고, 불편하고, 고난과 고통의 길을 가야하는 곳이지만 광야는 하나님의 축복과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나는 곳입니다. 광야는 우리가 선택해서 들어가는 곳은 아니지만 믿음으로 하나님을 선택하는 곳이고, 나의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장소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 정리 김남원 부장 one@onnuri.org

기획 명절 스트레스 극복하기

“도끼는 잊어도 나무는 잊지 못한다”

가족과 친척을 ‘나’로 보는 뇌 반응이 원인
입장 바꿔 생각하고, 사랑과 관심이라고 여겨야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추석이 코앞이다. 오랜만에 온 가족이 모여 서로의 안부를 묻고, 사랑과 은혜를 나눌 생각에 설레기만 하다. 그런데 이 아름다운 명절이 자칫 잘못하면 큰 화를 부르기도 한다. 명절 스트레스 때문이다. 명절 스트레스는 명절에 받는 가족구성원들의 정신적, 육체적 스트레스를 총칭한다. 주로 주부들에게 해당될 것 같지만 아니다. 온 가족이 명절 스트레스에 시달릴 수 있다. 특히 취업준비생, 미혼남녀, 고부·장서 관계에 있는 사람들은 명절 스트레스를 조심해야 한다. 명절 스트레스에서 비롯된 우울증에서부터 가족폭력, 가족해체까지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어떻게 하면 건강하고 즐거운 명절을 보낼 수 있을까.

/ 정현주 기자 joo@onnuri.org

A자매(39세)는 명절에 대한 안 좋은 기억이 있다.

“중학생 때였어요 명절에 친척 어른신께 인사를 드렸는데 그분이 제 뺨뺨뺨한 치아를 보시더니 ‘이런 이빨은 처음 본다’며 한소리 하셨어요. 가뜰이나 외모에 신경을 많이 쓰는 사춘기 시절이라 큰 상처를 받았어요. 좋은 치과를 소개해 줄 것도 아니면서 왜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더라고요.”

B형제(35세)는 오랜 백수생활 끝에 지난해 취직했다. 그리고 맞이한 명절에 집안 어른들의 잔소리를 또 들어야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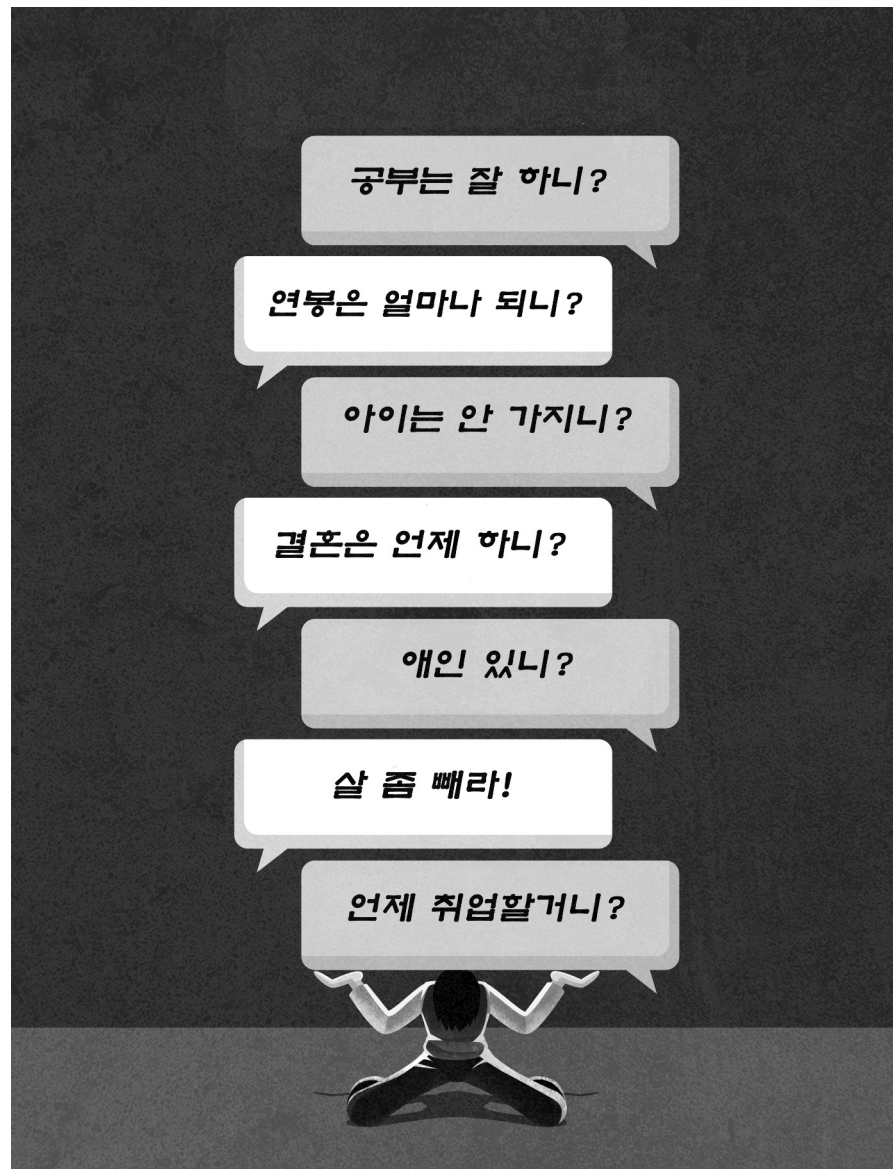
“백수일 때는 ‘얼른 돈 벌어야 하지 않겠냐’며 걱정하시더니 취직하니깐 ‘연봉 얼마나, 거긴 뭐하는 회사냐, 결혼해야지’라고 하시더라고요. 잔소리는 정말 끝이 없는 것 같아요. 부모님께는 죄송하지만 이번 추석에는 회사일 핑계 대고 고향에 안 내려가려고요.”

즐거기만 해도 부족한 명절이 듣기 싫은 잔소리 때문에 얼룩지고 있다. 취업포털 잡코리아가 직장인과 취업준비생 2892명을 대상으로 ‘추석 스트레스’를 조사했는데 응답자 77.5%가 추석을 앞두고 명절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준비생(80.2%)은 직장인(74.6%)보다 명절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고 있었다.

이번 추석에 가장 듣기 싫은 잔소리

취업준비생들이 이번 추석에 가장 듣기 싫은 잔소리(복수응답)는 “언제 취업할거니?”(73.6%)였다. “살 좀 빼라”(30.9%), “아무개는 00에 취업했대”(18.8%), “애인 있니?”(18.2%),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말이다”(15.3%) 등도 듣기 싫은 잔소리로 꼽혔다.

직장인의 경우는 성별과 결혼여부에 따라 양상이 달랐다. 미혼 직장인이 이번 추석에 가장 듣기 싫은 말은 “결혼은 언제 하니?”(남 67.5%, 여 63.3%)와 “연봉은 얼마나 받니?”(남 39.4%, 여 30.4%)였고, 기혼 직장인은 남녀에 상관없이 명절에 가장 듣기 싫은 말로 “요즘 경기가 어렵다는데 다니는 회사는 괜찮니?”(기혼 남성 48.8%, 기혼 여성 28.1%)를 꼽았다. 2위와 3위 대답은 성별에 따라 달랐다. 기혼 남성은 “연봉은 얼마나 받니?”(36.3%), “다 너희 잘되라고 하는 소리다”(20.8%) 등을 듣기 싫은 잔소리라고 답한 반면, 기혼 여성은 “연휴가 긴데 더 있다가 가려무나”(24.7%), “명절인데 음식은 넉넉하



게 준비하자”(24%)라고 응답했다. 또한 추석 스트레스 조사에 참여한 응답자 절반 이상(50.1%)이 과거에 명절 우울증을 겪은 적이 있다고 답했다. 명절 스트레스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추측할 수 있다.

20대 청년들도 예외가 아니다. 오죽하면 20대 청년 62%가 이번 추석에는 혼자 보낼 계획이라고 했을까. 알바천국(구인구직 아르바이트 전문 포털)이 최근 20대 회원 1,19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알바생과 추석 스트레스’ 설문결과에 따르면 61.9%가 이번 추석에는 혼자 보내겠다고 응답했다. 아르바이트 때문(27.2%), 친척 및 가족들의 잔소리를 피하고 싶어서(23.4%), 취업준비(17.3%), 아무 것도 하지 않고 쉬고 싶어서(12.2%) 등이 그 이유였다. 주목할 점은 20대 청년 응답자의 76.3%가 명절에 가족 및 친

척들에게 듣는 잔소리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는 점이다. 20대 청년들이 가장 듣기 싫은 잔소리는 “어른들 말 잘 들어”(22%), “만나서 사람을 있니?”(20.7%), “외모 관리해라”(20.3%) 순이었다.

명절 스트레스가 생기는 이유

그런데 명절 스트레스가 생기는 이유가 무엇일까. 왜 오랜만에 만난 가족과 친척들은 잔소리를 하고, 상처주고, 다투는 걸까. 뇌가 그렇게 반응하기 때문이다. 미국 조지아 귀넷 공대 연구팀의 실험에 의하면 낯선 사람과 가족(친척)들의 사진을 볼 때 활성화되는 뇌 부분이 서로 달랐다고 한다. 가족(친척)의 사진을 볼 때는 ‘자신’, ‘반성’과 관계되는 뇌 부위가 활성화됐

고, 타인의 사진을 볼 때는 행동을 결정하는 부위가 활성화됐다. 즉, 가족이나 친척을 ‘남’이 아닌 ‘나’로 인식하는 것이 명절 스트레스의 원인이다. 같은 말이라도 남이 하는 것과 가족(친척)이 하는 것은 그 느낌과 무게가 다르다. 그런데 가족을 자신과 같이 여기고 바라보기 때문에 타인을 대할 때처럼 객관적이고 상황을 제대로 보지 못한다. 그래서 잔소리를 하고, 상처를 주고, 싸우는 것이다. “네가 뭐가 모자라서 결혼을 못 하나?”, “언제까지 부모한테 얹혀 지낼 거니?”, “잘 살지 왜 이혼했냐?” 등 하지 말아야 할 말을 쏟아 놓는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이다.

가족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

그렇다면 명절에 만난 가족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 무엇보다 가족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배려가 절실하다. 누구를 위한 잔소리 인지를 먼저 생각해야 한다.

‘도끼는 잊어도 나무는 잊지 못한다’는 아프리카 속담이 있다. 누군가는 잔뜩 낱을 세운 도끼로 나무를 내려치고 잊어버리지만 그 나무는 찢힌 상처를 평생 몸에 지닌 채 잊지 못한다는 뜻이다. 무심코 뱉은 말 한마디가 상대방에게 큰 상처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입장 바꿔 생각해야 한다. 특히 외모, 학교, 성적, 취직, 연애, 결혼, 자식자랑 등 무심코 던진 질문과 잔소리가 상대방에게 가장 큰 상처를 줄 수 있다.

잔소리 대신 이렇게 해보는 것은 어떨까. “취업은 했니?”라는 말 대신 “잘 될거야”, “힘내라”는 말을 건네는 것이다. 잔소리를 듣는 태도도 중요하다. 가족의 사랑과 관심의 표현이라고 생각하고, 너무 고깝게 받아들이지 않는 자세가 필요하다. 가족과 친척들의 잔소리를 공격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나에 대한 관심의 표현으로 받아들이는 유연한 태도를 가져야 한다.

덕담은 사도 바울처럼 주고받자. 사도 바울은 로마서부터 빌레몬서에 이르기까지 신약의 절반에 해당하는 13권의 서신서를 적어 보내면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롬 1:7)는 인사(안부)로 시작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과 함께 있을지어다”(몬 1:25)라는 인사(축복)로 끝을 맺었다. 즐거운 추석이다. 잔소리보다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축복하고, 기도하는 아름다운 크리스천 문화를 실천하는 절호의 기회로 활용하자.



추석 감사예배 및 추모예배



이해영 목사(서대문공동체)

추 · 석 · 감 · 사 · 예 · 배

가정 예배 지침

- 1) 제사는 죽은 영혼에 대한 것이나 추모 예배는 고인을 회고하며 유일하신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본분을 지켜 제사상에 절하는 것을 삼가야 할 것입니다.
- 2) 감사예배의 경우 가족들이 둘러 앉아 예배를 드립니다. 추모예배의 경우 고인의

사진을 세워 놓고 고인이 쓰던 성경, 찬송가 또는 유품을 펼쳐 놓은 뒤 주변을 꽃으로 장식합니다. 향이나 촛불을 켜지 않으며, 지방을 쓰거나 음식상을 차려 놓지 않습니다.

3) 예배 후 함께 식사를 나눈 뒤 소박한 상품과 함께 가족별 장기자랑을 하거나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들을 찾아가 작은 사랑을 실천한다면 보다 더 의미 있는 명절이 될 것입니다.

신앙고백	사도신경	다같이
찬송	찬338장(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다같이
기도	가족 중에서	
성경봉독	창세기 28:16~22, 35:1~7	다같이
설교	벤엘에서 엘벤엘로	설교자
감사와 기도제목 나누기	(돌아가면서 서로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기도제목을 나눈다.)	다같이
중보기도		다같이
찬송	경배와 찬양 67장(날 구원하신 주 감사)	다같이
주기도문		다같이

벤엘에서 엘벤엘로

들어가는 말

추석이 담고 있는 가장 큰 의미 중에 하나는 부모와 형제들이 함께 만나는 ‘고향’ 일 것이며 그것은 ‘귀향’이라는 말로 잘 표현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아곱의 생애는 집을 떠

나는 삶과 집으로 돌아오는 삶으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그가 고향을 떠날 때와 다시 돌아올 때의 여정에서 만났던 하나님 체험은 추석 명절 온 가족이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도 특별한 은혜가 될 것입니다.

“벤엘”(하나님의 집) : 아곱은 형 에서에게 팔죽으로 장자의 복을 가로채어 형의 극한 분노를 샀습니다. 이로 인하여 아곱은 고향

집을 떠나는 도피의 삶이 시작됩니다. 그는 하란으로 도주하던 길에 노숙하던 중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기이한 꿈을 꾸었습니다. 잠에서 깨어나 자기가 베고 잔 돌을 취해 기름을 부으며 자신이 무사히 고향으로 돌아오게 해 주시면 하나님을 섬길 것이라는 서원과 함께 그곳을 ‘벤엘’ 곧 ‘하나님의 집’이라고 이름 짓게 됩니다. 이후 아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을 억척스럽게 일하며 열한 명의 아들과 딸 하나를 얻고 많은 재산을 모으게 됩니다. 성경은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 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창 30:43)고 묘사하고 있는데, 아곱을 가리켜 ‘그 사람’이라고 표현한 것은 결코 긍정적인 묘사가 아닙니다. 매우 인간적인 속임수와 잔꾀로 얻은 결과물임을 함축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벤엘”(벤엘의 하나님) : 20년이 지나 아곱은 처자와 모든 소유를 이끌고 고향으로 돌아가기를 결심합니다. 그 과정에서 아곱은 형 에서와의 만남을 크게 두려워했지만 극적인 화해를 이루었고 아곱은 무사히 가나안 땅 세겜에 이르러 장막을 치고 삶의 자리를 펼칩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곱은 가장 큰 위기를 맞게 되는데, 곧 세겜의 주장이 외동딸 디나를 성폭력했고 아곱의 아들 시므온과 레위가 유혈복수극을 벌이면서 몰락의 순간을 맞게 됩니다(창 34:31). 그러나 아곱이 세겜에서 도주할 때 하나님은 그에게 다시 나타나 “벤엘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셨고

(창 35:1) 아곱은 비로소 자신이 20년 전 서원했던 ‘벤엘’을 다시 방문하여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벤엘’ 즉 ‘벤엘의 하나님’이라고 이름을 바꾸어 명명합니다. 아곱의 신앙이 ‘벤엘’(하나님의 집)이라는 장소에 대한 신앙고백에서 ‘엘벤엘’(벤엘의 하나님)이라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고백으로 바뀐 것입니다. 아곱은 이제야 비로소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나가는 말

아곱이 고향으로 돌아가며 벤엘로 가지 않고 세겜에 장막을 친 것은 자신이 벤엘의 하나님께 서원을 지켜야 할 필요를 느끼지 못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는 자신의 수고와 노력으로 번성하여 많은 재물을 얻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창 31:38-41). 그러나 아곱은 고향으로 돌아오는 여정에서 모든 날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으면 결코 안전하고 평안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곱은 그동안 ‘하나님의 집’이라는 장소와 물질의 신앙에 머물러 있다가 ‘벤엘의 하나님’이라는 하나님께 대한 신앙으로 거듭난 것입니다. 오늘 고향집에 함께 모인 우리는 다른 어떤 결과물보다 지나온 삶 속에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하며 찬양하는 가족이길 원합니다. 지난날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추 · 모 · 예 · 배

개식사	인도자
오늘 우리는 고(故) 000님을 추모하며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이 시간 신령과 진리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묵상기도	시편 80:1~3 다같이
찬송	찬438장(내 영혼이 은총입어) 다같이
신앙고백	사도신경 다같이
기도	가족 중에서
성경봉독	창세기 50:15~21 가족 중에서
설교	위로와 구원, 그리고 섬김 설교자
찬송	찬212장(겸손히 주를 섬길 때) 다같이
추모하는 이야기	다같이
(고인의 모습이 담긴 영상이나 유품을 통해 고인에 관한 추억을 나눈다.)	
주기도문	다같이

위로와 구원, 그리고 섬김

들어가는 말

고인께서 우리의 곁을 떠나신지 00주기를 맞이하여 드리는 이 추모예배가 인간의 삶과 죽음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며 우리 모두에게는 하늘의 위로와 평안이 넘치기를 간구합니다. 오늘 고인을 추모하는 이 시간은 단지 고인의 지나간 과거를 회상하는

자리만이 아니라 아직 삶의 여정 가운데 남겨진 우리 모두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격려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자리입니다.

“위로하는 삶으로”(19절) : 아버지 아곱이 죽은 후 형제들은 요셉을 두려워했습니다. 과거 그들의 죄악에 대한 요셉의 복수를 염려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형제들은 아버지의 유언에 따라 요셉에게 간곡히 용서를 구합니다. 이때 요셉은 눈물을 흘리며 그들에게 “두려워하지 마소서”라는 말로 형제들을 위로합니다. 사랑하던 사람이 떠난 후 남은

자들의 삶에는 슬픔과 함께 근심과 염려, 때로는 갈등과 두려움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남은 자들로서의 우리는 서로에게는 물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 가지 연약함 속에 사는 사람들을 용서하고 위로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구원을 이루는 삶으로”(20절) : 요셉은 형제들을 위로하면서 자신이 겪었던 고난을 형제들의 탓으로 돌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선을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섭리, 곧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하시려는 것입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고인이 떠나신 후 남겨진 우리들에게 요청되는 삶이란 단순히 행복하며 성공을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사람들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삶이며, 이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것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구원을 이루는 삶은 요셉처럼 고난과 역경마저 신실하게 극복하며 승리하는 능력이 될 것입니다.

“섬김의 삶으로”(21절) : 요셉이 형제들에게 전한 위로는 자신의 고난이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신앙고백으로 멈추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형제들에게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

의 자녀를 기르겠습니다”라는 말로 자신의 현신을 약속하며 실천했습니다. 요셉의 이러한 삶은 어린 시절 꾸었던 꿈, ‘형제들의 곡식단이 자신의 곡식단에 절하는 것’과 ‘해와 달과 열한 별이 자신에게 절하였다’는 꿈의 실체이기도 합니다. 결국 진정한 승리자란 섬기는 자라는 사실이며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섬기는 자로 오신 이유이기도 합니다(막 10:45). 고인을 추모하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은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섬김의 삶입니다.

나가는 말

사랑하는 사람이 떠난 이후 남겨진 자들의 삶에는 여러 가지 갈등과 두려움이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격려하며 소망을 줍니다. 이제 우리 모두는 각자의 삶의 자리 속에서 서로를 용서하고 위로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이요,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이며, 구체적인 현신으로 섬김의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고인을 추모하는 오늘 우리는 더욱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전도의 신바람이 분다

부천 여성사역, 전도를 배우고, 실천하고, 이웃과 나누고

부천 온누리교회 여성사역에 전도의 신바람이 불고 있다. 성도들은 복음을 전할 수 있어 행복하다고 하고, 복음을 들은 사람들은 예수 만나 행복하다고 고백하고 있다. 그 선봉에 전도팀이 있다. 부천 여성사역 전도팀은 수요일여성예배를 드리자마자 약속이라도 한 듯 병원, 학교, 길거리 등지로 전도를 나간다. 전도를 더 잘하기 위해서 온누리 전도학교 강의를 개설했고, 인근 교회에 전도팀을 파송하기도 했다.

/ 김영선 기자 k4458@onnuri.org

요즘 길거리에서 전도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모른다. 조금 이상한 사람이나 유별난 사람 취급 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도 길거리에서 전도하면 유별나다고 지적한다. 그런데 이보다 더 큰 문제가 있다. 길거리에서 만난 대부분의 사람들이 교회의 '교' 자만 들어도 질겁하는 것이다.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그만큼 좋지 않은 탓인데 그 때문에 길거리전도가 더 힘들다. 이 와중에 부천 온누리교회 여성사역 전도팀에는 전도의 신바람이 불고 있다고 한다. 비결이 무엇일까.

전도에 대한 성도들의 뜨거운 열정이 그 첫 번째 원동력이다. 부천 여성사역은 매주 수요일 수요일여성예배를 드리고 나면 교회 인근 공원, 도심, 병원으로 전도를 하러 간다. 매주 목요일에는 '온누리 전도학교'를 열고 전도를 배운다. 전도를 배우고 실습하는 과정에 매주 60여 명의 여성들이 참석하고 있다.

전도의 참 맛을 알게 되다

거리에서 만난 부천 여성사역 팀원들은 표정부터가 남다르다. 예수 전하는 일을 어찌나 행복해하는지를 그들의 표정만 봐도 생생하게 느낄 수 있다. 그렇게 해맑게 웃으면서 세상 전부를 가진 사람처럼 행복한 표정으로 전

도하는데 어느 누가 거절할 수 있을까. 손수 만든 팔찌, 부채, 간식바구니 등의 작은 선물은 덤이다.

사실 부천 여성사역 전도팀의 탁월한 전도 실력은 어느 날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다. 전도를 부지런히 배우고 연구하고, 실습했다. 부천 여성사역에서는 올해 초부터 '온누리 전도학교'를 개설했다. 바로 그 온누리 전도학교에 참석한 성도들의 열정이 얼마나 뜨겁던지 강사들이 깜짝 놀랄 정도였다.

지난 9월 21일에도 온누리 전도학교 강의를 듣고 있는 부천 여성사역 전도팀원들의 눈빛이 반짝이고 있었다. 60여 명이나 되는 여성들이 전도에 대한 주옥같은 강의를 하나라도 놓치지 않으려고 정말 열심히 듣고 있었다. 이날 강의 주제는 '반대질문 대처법'이었다. 이해경 권사(서빙고 온누리 전도학교, 송파공동체)가 강의했다. 이 권사는 "스펀지가 물을 흡수 하듯이 전도에 대한 강의를 이해하고 실습하는 부천 여성사역 전도팀을 보고 깜짝 놀랐다"고 말했다.

부천 여성사역 전도팀이 이토록 열정적으로 전도에 임하게 된 이유는 전도의 참 맛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부천 여성사역 김필수 집사는 "어렵게만 느껴지던 전도가 이제는 정말 쉬워졌다"고 했고, 조영숙 권사와 최애란 권사는 "요즘은 전도하는 재미와 즐거움에 푹



부천 여성사역 전도팀이 여월초등학교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다.

빠져 있다"고 고백했다.

나누는 전도, 탁월한 전도

부천 온누리 전도학교에 눈에 띄는 이가 있었다. 그는 유일한 남자 수강생이었다. 주인공은 부천 여월동 평화교회를 섬기고 있는 이상완 목사다.

"아내가 부천 여성사역 성도들의 전도열정이 너무 뜨겁다면서 저더러 가서 배우라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와 보니까 전도열정이 정말 대단하더군요. 더군다나 저희 교회에서도 전도를 해주시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부천 여성사역 전도팀원 10여 명은 매주 평화교회를 찾아가 전도를 하고 있다. 평화교회

이상완 목사와 함께 전도한 지체들을 만나러 가기도 하고, 평화교회 인근에 있는 여월초등학교에서 전도를 하기도 한다. 그 어렵다는 요즘 초등학생에게도 탁월하게 복음을 전하고 있다.

"안녕, 혹시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 예수님에 대해 들어볼래?"

부천 여성사역 전도팀이 복음 전하는 모습을 보고 아이들이 몰려들기도 한다. 그러면서 예수를 만나고 그 자리에서 영접기도도 한다. 부천 여성사역 전도팀을 만난 이들은 하나같이 이렇게 고백한다.

"전도를 이렇게 잘하시는 분들은 처음 봤어요. 그분들을 보고 전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겠더라고요."

목회칼럼



권오향 목사
(부천 온누리교회)

올해 초부터 부천 온누리교회 여성사역은 수요일여성예배를 드리고 나서 둘씩 짝을 지어 교회 인근에 있는 병원, 공원, 시장, 학교, 동네 등지로 복음을 전하러 간다. 그들의 손에는 정성이 담긴 작은 선물이 들려 있다. 전도용 책자, 복음 팔찌, 복음 큐브 등이다.

전도팀이 만나는 사람들이 너무 다양하다. 어린 시절 교회를 다닌 적이 있지만 성인이 되어 떠나버린 사람들,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가 상처를 입고 돌아선 사람들, 교회 근처에도 가보지 못하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

아온 사람들, 주변에서 들은 소리만 가지고 하나님에 대해 궤변을 늘어놓는 사람들도 있다. 부천 여성사역 전도팀은 한 영혼 한 영혼을 만나면서 세상에는 복음을 들어야 할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더욱 절실하게 느끼고 있다. 우리를 먼저 택하시고 부르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을 감출 길이 없다.

복음을 들었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것은 아니다. 집안 대대로 불교를 믿는 가정이라고 나름의 이유를 대든지, 지금은 마음의 준비가 안됐다고 회피하는 경우도 있다. 일이 너무 바빠 교회에 갈 시간이 없다고 하거나 무슨 일이 있어도 교회 근처에는 걸지도 하지 않을 거라고 엄포를 놓는 사람도 있다.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을 보면 마태복음 22장 1절부터 6절에 나오는 혼인잔치에

초대받은 손님들이 떠오른다.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배운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 잔치에 오라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그들이 돌아보지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하나님이 예비하신 한 영혼이 있다.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시기를 오랫동안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이다. 전도팀은 그들을 만나면 잃어버린 자식을 찾은 것과 같은 심정이 된다. 뿔 듯이 기뻐하며 복음을 전한다. 또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복음을 거부한 사람들이 언제가 믿음으로 반응하기를 간절히 기도한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고 하셨다. 여기서 '반석'은 헬라어로 여성명사인 '페트라'이다. 예수님이 교회를 여성명사인 '페트라'에 비유한 까닭은 교회의 본질이 바로 생명을 낳는 일이기 때문이다. 교회는 시대를 막론하고 복음을 전할 때 생명력을 유지할 수 있다. 그 생명력이야말로 교회를 지탱할 수 있는 든든한 뿌리요, 죽어가고 있는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힘이다.

부천 온누리교회 여성사역 전도팀은 오늘도 새 생명을 잉태하는 마음으로 복음 전하는 길을 나선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길 잃은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 놓고 이 세상에 찾아오신 것처럼 말이다.

25년 만에 맺힌 첫 번째 열매

서빙고 주차사역팀, 경기도 평택 고령교회 아웃리치

주차사역팀의 헌신은 정말 끝이 없다. 서빙고 온누리교회 주차사역팀이 이번에는 미자립교회 보수공사에 두 팔을 걷어붙였다. 지난달 16일부터 23일까지 경기도 평택시에 위치한 고령교회 보수공사를 실시했다. 그들의 헌신에 낚고 빛바랜 교회가 새 건물로 변신했다. 건물만 달라진 것이 아니다. 복음의 불모지와 같던 지역 주민들 마음에 복음의 씨앗도 심었다. 그 현장에 다녀왔다.

/ 이소정 기자 s2868@onnuri.org



▲ 서빙고 주차사역팀이 고령교회에서 보수공사를 하고 있다.



▲ 이·미용팀 봉사로 어르신이 활짝 웃고 있다.

“위이이잉~ 쿵쿵.”

이른 아침부터 고령교회 뒤편의 가라앉은 지반을 깨는 소리가 요란했다. 페인트 스프레이건으로 교회 외벽을 칠하는 소리, 서재의 오래된 벽지를 뜯어내는 소리, 예배당을 청소하는 소리도 시끌벅적했다. 웬만한 공사현장 이상이었다.

여기는 경기도 평택시 고령교회 보수공사 현장이다. 이곳에서 구슬땀을 흘리는 이들은 다름 아닌 서빙고 온누리교회 주차사역팀원들이다. 동틀 때부터 해질 때까지 고된 노동이 이어졌지만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그 모습을 바라보는 고령교회 박경양 목사(72)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다.

“요즘은 구름 위를 걷고 있는 기분이에요. 마치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만 같아요. 감사한 마음을 어떻게 다 표현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만남, 고령교회와 박경양 목사

경기도 평택시 청북IC 고속도로에서 시골길로 들어서면 노랗게 익은 벼들이 인사를 한다. 그 길을 따라 걸어 올라가면 평택시 청북읍 고령1길 73번지에 위치한 고령교회가 보인다.

박경양牧사는 고령교회에서 25년째 시무하고 있다. 박牧사는 아무런 연고가 없는 평택시 청북읍 고령리에서 1993년부터 목회를 했다. 연고도 없는 지역에서 목회를 한 이유는 목회자가 가장 필요한 곳은 교회가 없는 마을이나 교회는 있지만 목회자가 없는 곳이라고 여겼기 때문이다.

목회가 쉽지는 않았다. 특히 전도가 어려웠다. 마을에 청년들이 없을뿐더러 깊이 뿌리내린 토속신앙과 남존여비 사상이 전도를 가로막았다. 고령교회에 나오는 성도가 모두 여자인 것만 봐도 이곳에 남존여비 사상이 남아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박牧사가 처음 부인할 때 성도가 13명이었는데 그 중에서 어르신 7명이 하늘나라로 떠났다. 그 뒤로 성도 6명이 고령교회에 출석하고 있다.

박경양牧사의 나이도 어느새 일흔 두 살이 됐다. 그의 나이만큼이나 교회도 노후됐다. 비가 올 때마다 누수가 되는데 막을 방법이 없었다. 교회를 보수하고 싶은 마음은 굴뚝같았지만 엄두조차 내지 못할 정도로 사정이 열악했다. 바로 그때 서빙고 온누리교회 주차사역팀을 만나게 됐다.

서빙고 주차사역팀을 담당하고 있는 박성천牧사가 주차사역팀원들에게 박경양牧사의 큰딸 박혜연 자매(특별한초대공동체)의 기도 제목을 나눈 것이 계기가 되었다. 고령교회의 안타까운 사연을 전해들은 서빙고 주차사역팀은 그곳으로 아웃리치를 가기로 결정했다. 이 소식을 전해들은 박혜연 자매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감사와 기쁨을 느꼈다고 했다.

“부모님 연세가 많으신데 교회 사정이 계속 어려워지니까 걱정이 많았어요. 9년 동안 부모님과 고령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왔는데 그 기도가 응답되었어요.”

지난 7월 5일, 답사차 고령교회를 방문했다. 서빙고 주차사역팀장 조성수 집사는 그날을 아직도 잊지 못하고 있었다.

“막막했어요. 한두 군데만 손볼 정도가 아니

었어요. 교회 전체를 수리해야 할 정도로 낡았더라고요.”

생각보다 상황이 좋지 않았다. 열악하기 짝이 없었다. 지붕은 벗겨져 있었고, 교회 좌측 외벽 하부는 움푹 파여있었다. 교회 뒤편 담장 하부는 40cm 이상 지반이 침하된 상태였다. 비가 오면 반지하에 있는 예배당과 박경양牧사 서재에 물이 쉴 수밖에 없었다. 빗물이 자꾸 새니 예배당과 서재 벽면에는 늘 곰팡이가 피어 있었다. 균열도 심각했다.

구슬땀, 보수공사와 복음의 씨앗 뿌리기

하루 만에 끝낼 수 있는 공사가 아니었다. 전문 인력도 필요했다. 서빙고 주차사역팀원 26명과 주차사역팀 소속 한명석 집사(문화재수리기술자)의 동료 2명(단청기능자), 최광근 집사(미장기능사)의 동료 1명이 아웃리치에 참여했다. 그렇게 9월 16일부터 23일까지 5차례 걸쳐 공사를 실시했다.

가장 시급한 방수공사에 집중했다. 교회 좌측 외벽 하부는 시멘트로 메우고, 옥상에는 방수 페인트를 칠했다. 지붕도 새 것으로 교체했다. 잦은 누수로 망가진 예배당도 꼼꼼하게 보수했다. 물이 스며들어서 움푹 가라앉은 강대상을 새 합판으로 갈고, 예배당 벽면에 페인트 칠을 새로 했다. 어두컴컴했던 예배당 형광등을 LED 전등으로 바꾸었더니 한결 밝아졌다. 오래된 음향시설도 새 것으로 교체했다. 똑똑 똑똑 고치다보니 낡고 허름한 곳이 보이지 않았다. 그렇게 오래된 교회가 새 생명을 얻었다.

지난 9월 23일에는 막바지 공사가 한창이었다. 쉬는 시간이라고는 점심시간뿐이었지만 누구하나 불평불만하지 않았다. 성광제 집사(주차사역팀 아웃리치 팀장)는 힘들어도 웃을 수 있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다.

“고령교회 목사님과 사모님, 성도들, 마을 주민들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는데 어떻게 기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같은 시각, 마을회관에서는 어르신들을 위한 이·미용봉사가 한창이었다. 주차사역팀원들의 부인들이 주를 이룬 6명이 이·미용 봉사에 나섰다. 봉사한지 30분도 안돼서 어르신 10명이 모였다. 양춘화 할머니도 함박웃음을 지으며 미용의자에 앉아 계셨다.

“내가 복이 많아요. 시내에 있는 미용실 가려고 나왔는데 마침 이장님이 전화가 와서 바로 이리로 왔어요.”

양춘화 할머니가 유독 이·미용 봉사를 좋아하는 이유가 있다. 이곳에서 시내에 있는 미용실까지 가려면 버스를 두 번 이상 갈아타야 한다. 번거롭고 힘이 드는 일인데 마을까지 직접 찾아와 이·미용 봉사를 해주니 좋아할 수밖에 없다. 염색하러 온 유병두 할아버지도 입이 귀에 걸려 있었다.

“다음 주가 추석인데 아이들이 오잖아요. 염색이라도 하면 조금 더 젊어 보이지 않을까 싶어서 왔어요.”

열매, 마을 최초로 남자가 교회에 나온다

고령교회 보수공사 현장과 마을회관을 떠나지 않는 한 사람이 있었다. 이 마을 이장 구봉모 씨다. 그는 교회를 다니지 않지만 고령교회 보수공사를 자신의 일처럼 도왔다.

“여기까지 찾아오셔서 우리 마을에 있는 고령교회를 보수해주시고 주민들을 위해서 이·미용 봉사도 해주시는데 제가 당연히 도와야지요.”

해질녘 마을회관에서는 마을잔치가 열렸다. 주차사역팀이 어르신들에게 따끈한 삼계탕 한 그릇을 대접했다. 황성규 집사(마르페푸드 대표)가 삼계탕 50인분을 준비해왔다. 식사와 함께 복음 전하는 것도 잊지 않았다.

서빙고 주차사역팀은 고령교회 외관만 고친 것이 아니다. 마을 주민들의 마음까지 활짝 열었다. 구봉모 이장이 지난 주일(9월 24일) 고령교회 주일예배에 출석했다. 구봉모 이장이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고 박경양牧사가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이 마을에서 남자가 교회에 와서 예배드린 것은 오늘이 처음이에요. 25년 만에 맺힌 첫 번째 열매입니다.”

이기훈 목사의 영국의 개혁주의 신앙을 찾아서

영국 교회의 영성과 그 뿌리

종교개혁하면 가장 먼저 루터와 독일을 떠올린다. 영국의 종교개혁에 대해 아는 사람이 상대적으로 드물다. 그러나 영국의 청교도들이 미국을 세웠고, 미국에서 성장한 선교사들이 조선에 들어와 복음을 전했다. 유럽의 작은 섬나라 영국의 개혁주의 신앙이 대서양을 건너 미국과 동양의 작은 나라 조선에까지 영향을 끼쳤다. 이기훈 목사가 영국 개혁주의 신앙의 흔적을 찾아가는 글을 4회 연재한다. / 편집자 주

영국의 개혁주의 신앙의 흔적을 찾아가기 전에 영국 교회의 역사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기독교 역사를 보면 영성에 세 가지 지류가 있다. ‘동방교회 영성’, ‘지중해 영성’, ‘켈트 영성’ 이 바로 그것이다.

‘동방정교회 영성’의 주제는 ‘온전함’을 추구하는 것이다. 이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마 5:48)”는 말씀에 근거하고 있다. 그들은 독신 생활, 금식, 기도생활, 청빈생활, 수도원 중심의 생활 등을 통해서 온전함을 추구하였다. 지금도 그리스 곳곳에 남아 있는 역사가 오래된 수도원들이 동방교회 영성을 증거해 준다.

‘지중해 영성’이란 로마 가톨릭 교회의 영성을 의미한다. 지중해 영성의 주제는 ‘죄 사함’이다. 이들은 죄와 죄성, 죄악을 깨닫고 예수님의 구속과 용서의 은혜를 끊임없이 갈구한다.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타락한 세상에서 만족과 기쁨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곳에서의 삶을 준비하는 것으로 이해했다. 그 결과 영과 물질,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 거룩한 것과 속된 것, 교회와 세상을 분리시키는 이원론적 신앙을 갖게 했다. 어거스틴의 신학에 근거해 세워진 지중해 영성은 한국 교회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

‘켈트 영성’이란 초기 영국 교회의 영성을 말한다. 켈트(Celt)란 아일랜드와 스코틀랜드의 언어와 문화를 일컫는 이름이다. 한국 교인들에게 켈트 영성은 낯설다. 한국어로 번역된 켈트 영성에 관한 책을 찾아보기 힘든 것만 보아도 그 이유를 알 수 있다. 또한 원죄에 대한 교리적 이해가 다르다는 이유로 외면당한 것도 이유 중에 하나일 것이다.

주후 600여 년 동안 영국 땅에서 부흥했던 켈트 교회의 영성의 주제는 ‘창조’이다. 그들은 하나님의 창조 안에는 그분의 선하심이 담겨 있다고 믿었다. 그들은 지중해 영성처럼 교회와 세상을 분리하지 않았다. 그들은 이 세상이 비록 죄악으로 가득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은총도 가득한 곳이라고 생각했다. 하나님은 기록된 성경 말씀과 그분이 창조하신 자연을 통해서 계시를 하신다고 믿었다. 창조의 세계는 하나님의 신비와 말씀을 보여주는 또 한편의 성경이라고 생각했다. 켈트 영성을 볼 때 한국 교인들이 죄와 죄책감과 씨름하면서 신



아이오나 섬의 켈트 수도원.

앙생활을 하느라 일상의 선함과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 안타깝다는 생각이 든다. 생활의 소소한 것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고 즐기면서 산다는 것은 복이 있는 삶이다.

영국의 교회 역사와 켈트 영성

영국 교회의 영성을 연구하려면 그 뿌리가 되는 켈트 영성을 더 이해할 필요가 있다. 596년에 로마 교황이 된 그레고리 대제는 세계를 기독교 왕국(Christendom)으로 만들 비전을 품었다. 그는 자신의 이상을 실현하기 위하여 597년 당시 영국 켈트 왕국에 속해 있던 도시 캔터베리에 선교사를 파송하였다. 그러나 당시 영국에는 이미 교회가 있었다. 그 교회가 바로 켈트 교회다. 마치 우리나라에 선교사들이 오기 전에 이미 세례 받은 사람들과 한글 성경이 있던 것과 같다. 영국에는 어떻게 기독교가 일찍 전래되었을까? 교회 역사가 터툴리안은 “1세기에 아리마대 요셉이 스페인을 거쳐 영국 브리스톨에서 선교하고 교회를 세웠다”고 기록하고 있다. 또 주후 37년경 로마 티베리우스 황제의 마지막 임기에 지금의 터키 갈바도기아에서 기독교인들이 이주해 왔는데 그들은 예배소에서 사역하고 있던 사도 요한의 신앙을 물려받은 사람들이었다고 한다. 로마 교회가 베드로의 영성을 이어 받았다면 동방교회는 요한의 영성을 물려받았기 때문에 켈트 교회는 자연스럽게 요한의 영향을 받았다. 그런가 하면 로마가 주전 55년경부터 300년 동안 영국을 지배했는데 그 기간 동안 군인들을 통해서 기독교 신앙이 전해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학자들도 있다.

영국의 교회 역사는 켈트 교회 시대, 로마 가톨릭 교회 시대, 영국국교회(성공회) 시대로 구분할 수 있다. 로마 교회가 영국으로 진출하기 전까지 켈트 교회는 잉글랜드, 웨일스, 스코틀랜드, 아일랜드 지방의 복음화를 위하여 왕성하게 선교사를 파송하면서 선교에 열중했다. 그 중에서 두 인물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첫 번째 인물은 패트릭(St. Patrick, 387-493)

이다. 그는 스코틀랜드 출신 성직자이자 선교사이다. 아일랜드의 복음화를 위하여 일생을 헌신하였다. 지금도 북아일랜드에 가면 그의 사역의 흔적들을 만나볼 수 있다. 특히 그는 수도원을 건설하고, 제자양육에 주력했으며, 처음으로 아일랜드에 로마식 문자를 보급하는 등 로마 문화를 전해 주어 미개한 섬나라의 문화를 벗어나게 했다. 그는 지금도 아일랜드의 국가적 영웅이자 성인으로 존경을 받고 있다.

두 번째 인물은 콜롬바(Columba, 521-597)로 선교사다. 그는 563년 아일랜드와 스코틀랜드 사이에 위치한 작은 섬 아이오나(Iona)에 켈트 수도원을 세웠다. 켈트 수도원은 공동체성을 중시하였고, 진리를 추구하였으며, 정의와 자비를 실천하였다. 그는 300권 이상의 성경을 복사해서 보급하였다.

잉글랜드 지방은 635년 아이오나에서 파송된 선교사 아이단에 의해 켈트 교회가 세워졌으며, 웨일스 지방은 539년 경 선교사 데이빗에 의해서 켈트 교회가 세워졌다. 이렇게 켈트 교회는 로마 교회와는 다른 조직 형태의 교회로 부흥했다.

켈트 교회 영성의 진수

로마 교회가 597년부터 영국에서 선교활동을 시작한 이래 켈트 교회와 여러 가지로 부딪혔다. 예를 들면 부활절 날짜, 성직자들의 삭발 형태, 세례 방법과 신앙생활의 규칙 등을 로마식으로 할 것이냐 켈트식으로 할 것이냐를 두고 갈등했다. 당시 영국은 7개 작은 국가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그 중 하나였던 ‘노섬브리아’의 왕은 켈트 교회에서 세례를 받았고, 왕비는 로마 교회에서 세례를 받았다. 이들 부부는 부활절을 자신의 교회력을 따라 지키려 함으로써 매사에 부딪힐 수밖에 없었다. 결국 이와 같은 갈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오스위(Oswy)왕은 664년에 휘트비에서 종교회의를 열었다. 이 회의에서 왕이 로마 교회를 지지함으로써 켈트 교회는 점차 세력이 약화된

은 물론 설자리를 잃고 변방으로 밀려났다. 반대로 로마 교회는 점점 왕성해져서 약 800년 동안 헨리 8세가 개혁을 단행하기 전까지 영국의 국교처럼 자리매김 했다. 이때 켈트 교회는 로마 교회의 회유와 핍박에 맞서지 않았다고 한다. 싸움을 피한 것이다. 왜냐하면 교회 간 싸움으로 가리게 될 하나님의 영광을 염려하여 일종의 양보를 선택했던 것이다. 이것이 켈트 교회 영성의 진수라고 볼 수 있다. 오늘날 서로의 옳음을 주장하면서 갈 데까지 싸우는 한국 교회가 한없이 부끄러울 뿐이다. 한편 이런 와중에도 켈트 교회의 영성은 작은 섬 아이오나에 세워진 켈트공동체를 통해서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왔다. 아이오나 섬은 필자가 경험한 지방 중에서 가장 천국 같은 느낌을 받게 하는 아름다운 섬이었다.

켈트 교회는 로마 교회나 동방교회와는 다른 영성을 가지고 있었다. 그들은 수도원을 중심으로 가족 개념의 신앙공동체를 형성하고 있었다. 로마 교회처럼 권위적이거나 조직 중심이 아니었다. 사제나 평신도 모두 역할만 다를 뿐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영적인 동반자로 여겼다. 신앙공동체 안에서 남녀가 평등하였으며 기혼자도 수도자가 될 수 있었다. 로마 교회처럼 지어진 건물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자연을 예배장소로 삼았다. 그들은 성경과 자연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동방교회 수도사들이 자연과 분리된 토굴 속에서 수도한 것과 달리 그들은 자연의 아름다움 속에서 묵상하는 것을 실천하였다.

켈트 교회는 사회 정의를 실천하는 교회였다. 로마 교회가 유럽의 중심에서 만들어진 신앙이라면 켈트 교회는 유럽의 변방에서 힘들게 만들어진 신앙이다. 그만큼 켈트 교회는 많은 고통 속에서 세워졌다. 억압과 고통, 집 없음, 가난과 굶주림 등이 일상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그들 신앙의 중심에는 항상 하나님이 계셨다. 그 결과 물질적인 것과 안락함을 추구하는 유혹을 이길 수 있었다.

켈트 교회는 아픔을 통해서 세워졌기 때문에 단순한 삶과 없는 자들을 돌보는 삶이 그들이 살아가는 내용이었다. 아일랜드의 성자로 알려진 패트릭은 자신이 노예로 팔려가 고생한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유럽에서 최초로 노예제도를 반대하는 유럽인이었다고 한다. 이러한 영성은 지금도 아이오나공동체를 통해서 실현되고 있다. 아이오나공동체는 정의와 평화를 구현하기 위하여 핵무기 생산과 무기 판매 반대, 인종차별 반대, 빈곤퇴치 운동과 에큐메니칼 운동을 하고 있다. 이 공동체는 예배로 하루를 시작해서 예배로 하루를 마무리하고 있다.



이기훈 목사
(사회선교부, 일대일 사역 본부장)

생각해봅시다 정신장애인에 대한 낙인(stigma)

십자가가 구원의 상징이 된 것처럼

정신장애인에 대한 낙인을 예수의 흔적으로

최근 특수학교 설립을 반대하는 지역주민들 앞에서 장애인 자녀를 둔 부모가 무릎을 꿇었다. 이 사건이 파장을 일으켰다. 아직도 장애인에 대한 시선이 부드럽지 않다. 신체장애인에 대한 편견도 이정도인데 정신장애인에 대한 편견은 오죽할까. 한마음정신회복예배를 섬기고 있는 서용진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정신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낙인과 크리스천이 가져야 할 태도’를 주제로 글을 보내왔다.

/ 편집자 주



서용진 전문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수원 온누리교회 회복사역팀장)

최근 수원 온누리교회에서 어느 집사님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다. 그 집사님의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였다. 집사님의 어머니는 오랜 기간 말기암으로 고생하셨다. 어머니는 일

생을 믿음 가운데 살아오셨고, 다섯 자녀에게 믿음을 유산으로 물려주실 정도로 신앙이 깊었다고 했다. 말기암의 고통 속에서도 기도를 잊지 않으셨고, 온몸의 기력이 쇠하고, 정신마저 혼미해지는 순간에도 예배를 드렸다고 했다. “꼭바로 앉혀 달라”고 말씀하시고 옷매무새를 고치실만큼 삶이 기도요, 예배였던 분이셨다고 한다. 어머니의 고통과 임종의 과정을 곁에서 지켜본 자녀들은 어떻게 믿음 안에서 아름답게 떠날 수 있는지를 바라보며 말할 수 없는 은혜와 감동이 있었다고 간증했다.

크리스천에게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며, 절망이 아니라 소망의 시작이다. 무거운 육신의 짐을 벗고 온전히 주님을 만나는 영광과 환희의 순간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 주변에는 죽음이 기쁨과 소망으로 다가오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바로 정신장애인 자녀를 둔 부모들이다.

예부터 우리 선조들은 자식이 부모보다 먼저 죽는 것을 가장 큰 불효라고 했다. 죽은 자식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야 하는 부모의 비통한 심정을 말로 다 표현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정신장애인 자녀를 둔 부모들은 자식이 자신보다 먼저 떠날 수 있기를, 자신이 자식보다 조금 더 오래 살 수 있기를 소망한다. 그들에게 소원이 무엇이나고 물어보면 하나같이 이렇게 답한다.

“제가 자녀보다 오래 사는 거요. 제가 죽고 나면 그 아이 혼자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갈까요? 그 생각만 하면 눈을 감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하늘나라의 삶을 소망하지만 정신장애를 가진 자식을 이 땅에 홀로 두고 갈 수 없다는 뜻이다. 도대체 정신장애인을 바라보는 시선이 어떻게 정신장애인 자녀를 둔 부모들이 이런 마음을 먹는 것일까?

정신장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최근 화두가 된 뉴스가 있다. 서울의 한 지역에 장애아동을 위한 특수학교를 설립하려는



데 지역주민들이 혐오시설이라며 반대하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한 장애아동 어머니는 공청회에서 지역주민들 앞에서 무릎을 꿇고 선처를 부탁했고, 한 장애아동 아버지는 강단에 올라가 몇 번이고 절을 했다. 그럼에도 꾀안하는 지역주민들이 너무 한 것 같다. 보통 사람들은 몸이 불편하거나 지적기능에 장애가 있는 이들에게 양가적인 감정을 갖는다. 꺼림칙하지만 불쌍하다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그런데 정신장애인을 바라보는 시선은 딱 한 가지다. 매우 비도덕적이고, 어떤 사고를 저지르지 예측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2016년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한 ‘대국민 정신건강지식 및 태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정신과 치료 경험이 있는 사람과 같이 일할 수 있다고 응답한 사람이 50.8%, 정신질환자 시설이 우리 동네에 들어와도 받아들일 수 있다’고 응답한 사람이 34.5%에 불과했다. 사실 이 질문들은 표현이 모호하고 부드럽워서 실제보다 훨씬 좋게 평가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예전에 내가 현장에서 일할 때 사용했던 설문지에는 이런 질문들이 담겨 있었다.

“당신이 고용주라면 정신장애인을 고용하시겠습니까?”

“당신의 자녀를 정신장애가 있는 베이비시터에게 맡길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에 “예”라고 대답한 사람은 열 명 중 한 명도 없었다. 물론 직원을 고용하고 베이비시터를 구하는데 굳이 정신장애인을 고용할 필요가 있느냐고 반문할 수 있지만 이 질문에 대해 여러분의 마음에 처음 떠오르는 생각이 있을 것이다. 아마 “괜찮을까?”, 잘 할 수 있을까?, 위험하지 않을까?”일 것이다. 이것을 ‘낙인(stigma)’이라고 한다.

낙인은 어떤 정신장애를 갖고 있고,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떤 재능과 장점을 갖고 있는지 등에 대해서 전혀 고려하지 않고 정신장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받게 되는 비난, 단정, 한계를 의미한다. 이러한 편견이 가득한 사회 속에서 정신장애인들과 가족들이 설 곳이 없다.

주의 자녀답게, 교회를 교회답게

교회는 이 문제에 대해 면죄부를 받을 수 있을까? 단호하게 “그렇지 않다”고 말하고 싶다. 솔직히 그동안 교회는 정신장애인과 그 가족의 고통을 외면해 왔다. 정신장애의 특성상 당사자나 가족 스스로가 문제를 오픈하지 않으려 하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암으로 병상에 누워 있는 사람을 찾아가서 기도해 주거나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을 위해 예배당 좌석 한 부분을 비워두는 관심과 배려에 비하면 정신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그리 환영받지 못하고 있다. 도리어 교회에서조차 배척받는 경우가 있다.

정신장애를 가진 사람이 있으면 예배는 엉망이 되고, 공동체가 소란스러워질까봐 리더십들은 갈등을 겪게 된다. 크리스천도 사회의 편견에 영향을 받지 않을 수는 없다. 하지만 좁게는 정신장애에 대한 미신적인 오해를 가졌던 전근대적인 무지로부터 벗어나고, 넓게는 버림받고 소외된 이웃들을 섬기고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 교회가 정신장애인을 품어야 하지 않을까? 그런 면에서 온누리교회에 한마음공동체가 있다는 것은 정말 감사한 일이다. 정신장애를 가진 분들과 그 가족들이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매주일 한마음회복예배를 드릴 때마다 간

절함, 사모함, 은혜가 넘쳐난다.

당대 가장 낮고 소외된 사람들을 만나 함께 밥을 먹고 이야기를 나누고, 친구가 되었던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날도 외로움과 두려움으로 떨고 있는 이들을 만나 축복과 위로를 전하고 계신다. 그리고 우리에게 명령하셨다.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롬 12:15).

‘낙인’의 영어표현이 스티그마(stigma)인데 헬라어에서 온 단어다. 이것은 노예나 죄수처럼 신분상의 제한을 가진 사람들의 몸에 문신처럼 해두었던 표식이다. 정신장애인이라는 사회적 낙인은 이와 같이 한 사람을 단정 짓고 그의 삶을 제한해버린다. 또한 낙인은 너무나 깊게 새겨져 있어서 잘 지워지지 않는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똑같은 단어 ‘스티그마(stigma)’를 자신의 서신서에 사용했다. “나는 내 몸에 예수의 흔적(stigma)을 가졌다(갈 6:17)”가 그것이다. 그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이 있다. 하지만 분명한 한 가지는 사도 바울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 그의 삶 속에 주님의 흔적을 갖게 되었다는 것이다.

죄인들을 처형하기 위한 참혹한 십자가가 예수님에 의해 구원의 상징이 되었다. 이와 같이 노예와 죄수들에게 사용되던 낙인(stigma)이라는 단어가 바울에 의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고귀한 흔적(stigma)이 되었다. 이제 정신장애인들을 향한 사회적 낙인(stigma)이 사랑과 평화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의 흔적(stigma)으로 녹아 지기를 원한다. 그것이 우리를 더욱 주의 자녀답게 만드는 일이며, 교회를 더욱 교회답게 만드는 일이라 확신한다.

2017 나라와 민족을 위한 부흥집회 'ReFORM' 강사 스카이 제서니 목사의 저서소개

2017 나라와 민족을 위한 부흥집회 'ReFORM' 강사 스카이 제서니 목사의 대표적인 저서는 <With>와 <하나님을 팝니다?>가 있다. 먼저 소개할 책은 <With>이다. 가장 먼저 눈길을 끄는 것은 책 표지다. 표지에 저자가 주장하는 바가 요약되어 있기 때문이다. 짐 벨처 목사(<깊이 있는 교회> 저자)는 이 책을 이렇게 설명했다.

“스카이 제서니는 네 가지 전치사 ‘Under(맞추는), Over(상관없는), From(요구하는), For(위하는)’를 숨씨 좋게 이용해서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사상들을 진단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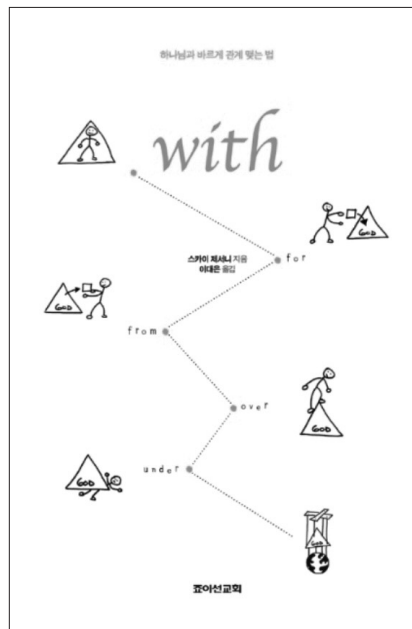
첫째는 ‘Under’이다. 많은 종교적 전통들은 우리가 하나님께 맞추며 그의 명령에 복종하면(life under God)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 되어 주고, 복을 줄 것이라고 가르친다. 이런 생각은 하나님을 이용해서 삶을 통제하려는 것이다.

둘째는 ‘Over’이다. 우리가 바르게만 살면 좋은 삶을 영위할 수 있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life over God)을 살 수 있다고 가르치는 전통을 말한다. 여기서 하나님은 실용적 도움과 조건의 주체 정도이다.

셋째는 ‘From’이다. 하나님께 요구하는 삶(life from God)은 하나님이 공급자라는 것을 바르게 가르치지만 그 뿐이다. 하나님을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을 공급해주는 자판기로 여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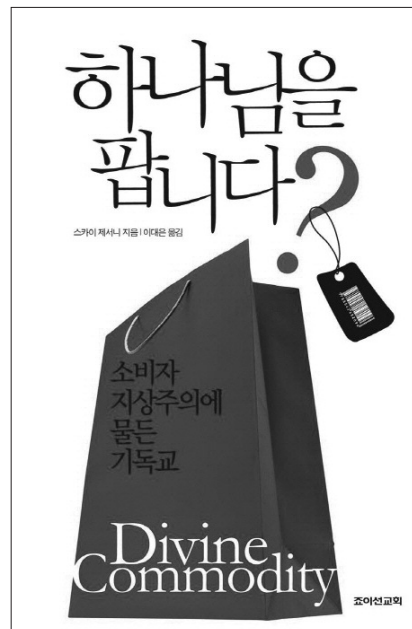
넷째는 ‘For’이다. 하나님을 위하는 삶(life for God)은 하나님의 사명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이용해서 삶의 의미와 목적을 찾으려고 한다.

이 네 가지 전치사가 보여주는 패러다임이



세속적이든, 종교적이든 간에 진리의 일부분을 담고 있지만 결국 부족한 것임을 보여준다. 살아있는 하나님과의 실제적인 연합을 놓치기 때문이다. 저자는 마지막으로 전치사 ‘With’를 제시한다. 하나님을 알고, 교제를 경험하는 삶이 실제로 무엇인지를 소개한다. 그것이 바로 우리 모두가 간절히 원하고, 필요로 하는 믿음, 소망, 사랑의 삶을 사는 것이다.

책 <하나님을 팝니다?>에서는 현대 소비중심문화에서 지나친 상업화로 비판적 상상력을 상실한 현대 교회를 적절하게 분석하고 비판한다. 흥미로운 점은 이를 화가 ‘반 고흐’와 팝아트 작가 ‘론 잉글리시’의 작품을 통해 알려준다. 저자는



반 고흐의 ‘별이 빛나는 밤’에서는 소용돌이치는 듯한 별이 비치는 밤하늘 아래 고요한 작은 마을이 그려져 있다. 천체들을 표현한 노란색이 마을에 있는 모든 집을 빛내고 있지만 교회에서만은 그렇지 않다. 이는 반 고흐가 당대 제도화된 교회에 대해 가진 비판을 보여준다. 마치 세상은 하나님의 임재와 사랑으로 가득한 반면 교회에서는 그것들이 사라진 것을 표현하는 것 같다.

팝 아트 작가 론 잉글리시는 고흐의 작품을 패러디한 ‘난개발된 교외의 별이 빛나는 밤’ 그림을 내놓았다. 이 작품에서 교회는 어둡지 않다. 오히려 밝게 빛나고 있다. 하지만 이 빛은 하늘로부터 오는 빛이 아니라 주위의 소비

문화에서 뿔어져 나오는 빛이다. 이러한 교회는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고 소비자들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 존재한다. 소비지상주의가 기독교에 미친 영향을 표현한 것이다. 즉, 교회를 교회로 보지 않고 하나의 기업으로 보게 하고, 예배를 유희으로, 심지어는 하나님을 상품으로 전락시킨 현실을 보여준다.

두 그림을 통해 저자는 두 가지를 이야기한다. 하나는 우리가 소비자로서 어떻게 신앙의 원리들을 왜곡했는지이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소비 가능한 상품으로 바꿔버렸는지, 시장에 의해 주도되는 개인주의가 어떻게 공동체를 와해시켰는지를 살펴볼 수 있다. 또 다른 하나는 대안적 신앙에 대한 비전을 복돋는다. 우리는 소비지상주의의 가치에 사로잡혀서 대안적인 사고를 하는 능력을 잃어버렸다. 결국 우리의 상상력은 소비지상주의와 하나님 나라 간의 격전지가 되어버렸다. 이제 우리 마음은 소비지상주의에서 벗어나 그리스도께 다시 사로잡혀야 한다. 토마스 켈리의 말처럼 하나님께 완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려면 먼저 그러한 삶을 향한 불타는 비전을 가져야 한다.

저자는 책의 각 장마다 우리 신앙의 어떤 측면이 소비지상주의에 의해 왜곡되었는지 잘 알려준다. 자기계발서가 편안한 식사대접을 받는 것과 같다면 이 책은 주방에서 직접 시기를 꺼내서 요리를 할 수 있도록 초대한다.



권용갑 목사
(용산공동체)

성경의 진실성을 입증하는 인물 - 고레스 왕

바벨론에 입성한 페르시아 왕 고레스는 놀랍게도 포로로 잡혀 온 유대인들을 함부로 대하지 않았다.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귀환시켰다(대하 36:22~23, 스 1:1~4). 이때 스룹바벨과 예수아를 따라 팔레스타인으로 돌아온 유대인들이 5천명이나 된다(스 2:64, 65). 심지어 고레스 왕은 느부갓네살 왕이 솔로몬 성전에서 약탈한 성전 기물을 되돌려 주고(스 1:7~11, 6:5), 유대 민족의 예루살렘 성전 재건을 물질적으로 돕기까지 했다(스 6:4).

고레스 왕은 유회정책을 한 인물로 유명하다. 어떻게 하면 여러 민족을 잘 다스릴지를 고민했다. 그의 가족사를 보면 그 성향을 알 수 있다. 그는 매대 왕 시약사레스 2세를 명목상 통일 페르시아 왕으로 세운 뒤 그의 딸 카산다네와 결혼했다. 뿐만 아니라 62세인 장인 다리오를 명목상 왕으로 앉혔다(단 5:31). 2년 뒤에 장인이 죽자 자신이 다시 집권(BC 537)을 했다.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너그럽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 이사가서에 그 답이 나와 있다. 이사가 선지자가 “고레스 왕이 열국을 정복하고 예루살렘과 성전을 회복할 자”라고 예언한 말씀(사 45:1)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다. 이사가 선지자는 고레스 왕을 이렇게 불렀다.



페르시아 왕 ‘고레스(BC 559~530)의 원통’.

“그는 나의 목자라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 하리라.”

고레스 왕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쓰임 받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실제로 하나님은 기쁨부음 받은 고레스 왕을 통해 예루살렘 성전 재건을 이루셨다(사 45:1~13, 44:28).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는 “고레스가 이사가서를 읽고 하나님의 권능에 경탄하며 선지자의 예언을 성취하려는 열망

과 야심에 사로잡혔다”고 기록했다.

고레스 왕의 원년까지 왕실에서 봉사하며 생존한 성경 인물이 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니엘이다. 다니엘은 BC 605년 느부갓네살 왕 때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다. 그 이후 고레스 왕이 바벨론을 점령했을 때 다니엘은 바벨론의 고위 관리였다. 당시 다니엘의 지혜로운 처신이 고레스 왕이 친유대 정책을 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유추

해 볼 수 있다.

고레스의 친유대 정책은 고레스 왕이 죽은 뒤에도 계속되었다. 고레스의 후계자 아닥사스다 1세(BC 464~423)가 특별 법령을 제정하여 고레스의 정책을 계승했다(스 7~10장, 느 2:1~8, 단 9:25).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귀환도 이때 이루어졌다. 이러한 고레스 왕의 업적은 역사적으로도 큰 영향을 미쳤다.

페르시아 왕 ‘고레스(BC 559~530)의 원통’에는 BC 536에 기록된 고레스의 필적이 있다.

“바사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켜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을 놓아주고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도록 했다.”

이 필적은 에스라 1장 1~3절의 내용을 확증해 준다. 길이가 약 99인치인 ‘고레스의 원통’은 역사적 자료를 통해 성경의 진실성을 입증시키는 중요한 자료다. 무엇보다 성경을 꾸며낸 이야기라고 치부하는 사람들에게 성경이 실제 있었던 일을 기록한 것이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자료이다.



박씨마 전도사
(페르시아어예배 담당)

“그는 나의 목자라...”



강동 아트센터 한강홀에서 열린 강동 사랑부 합창단 제2회 정기공연.

“꿈만 같고, 너무 행복했습니다”

강동 사랑부 제2회 정기공연 ‘동쪽하늘 무지개’

지난 23일, 강동 온누리교회 사랑부가 강동 아트센터 한강홀에서 제2회 정기공연을 했다.

‘동쪽하늘 무지개’를 주제로 열린 이번 정기공연에는 강동 사랑부 합창단, 부모, 간파빠야 합창단, 강동 연합 찬양사역팀 등 60여 명이 출연했고, 노치형 목사(강동 온누리교회), 박철웅 목사(장애인사역본부장) 등 관객 340여 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강동 사랑부 합창단은 이날 ‘큰 꿈은 없습시다’, ‘에델 바이스’, ‘사랑으로’ 등 15곡을 찬양했는데 관객들이 눈물과 박수갈채를 쏟아내게 하는데 부족함이 없었다.

강동 사랑부 합창단 학부모 김향옥 성도는 “장애가 있는 제 아이가 다른 사람들 앞에서 공연할 수 있다는 게 꿈만 같았다”고 했고, 또 다른

학부모 정현주 성도는 “연약한 줄로만 알았던 제 아이가 자신감 있게 노래하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행복했다”고 고백했다. 정한식 형제는 “강동 사랑부 합창단이 아름다운 선율을 만드는 것을 보고 나도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로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는데 일조하고 싶어졌다”고 다짐했다.

/ 김영선 기자 k4458@onnuri.org

차세대 출석관리앱 ‘nCare 2.0’ 출시

출석률, 명단관리, 전입 및 전출관리 기능 추가

차세대가 출석관리앱 ‘nCare 2.0’을 출시했다. nCare 2.0은 출석체크만 가능했던 차세대 출석관리앱에 ‘nCare’ 기능을 대폭 확대했다.

nCare 2.0의 기능은 출석률 확인, 부서명단관리, 전입 및 전출관리, 알람 등이 있다. 부서별, 반별, 학생 개인의 출석률을 확인할 수 있고, 학생과 교사 검색이 가능해지면서 더욱 탄력적인 양육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유윤경 교사(서빙고 중등2부)는 “

nCare 2.0은 인터페이스가 편리하고, 출석 체크 여부를 바로 알 수 있어서 유용하다”고 사용 후기를 밝혔다. nCare 2.0 다운은 QR코드를 이용해서 받을 수 있다.

/ 김영선 기자



▲ 안드로이드용

▲ iOS용

온누리탁구선교팀 회원 모집

10월 9일 가을정기대회 개최

2000선교 소속 온누리탁구선교팀에서 회원을 모집하고 있다. 온누리탁구선교팀은 매년 봄과 가을에 ‘온누리 열방탁구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오는 10월 9일에는 가을정기대회가 서빙고 온누리기독교문화전시관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탁구선교모임은 매주 토요일 오후 2시, 주일 오후 2시

서빙고 온누리기독교문화전시관 1층에서 진행하고 있다.

온누리탁구선교팀은 탁구를 이용해서 선교하는 것이 목표이자 비전이다. 선교지에 탁구대 보내기, 안산M센터 이주민 탁구교실 운영, 장애인 탁구교실 운영 등 다양한 선교활동을 하고 있다.

문의: 010-8750-2373

일대일 제자양육 심포지엄 개최

지난달 23일(토) 일대일사역본부가 ‘제1회 일대일 제자양육 심포지엄’을 서빙고 온누리교회 시온홀에서 개최했다. 이날 심포지엄에는 온누리교회 국내 10개 캠퍼스 일대일사역팀 리더십과 성도 113명이 참석했다. 일대일사역본부가 대외사역을 진행한 총복 제천 제일교회를 비롯한 타교회에서도 성도 11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심포지엄에서는 지난 31년 동안 진행된 일대일사역을 돌아보고, 앞으로 일대일사역의 의미와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기훈 목사 ‘일대

일 제자양육의 성경적 의미와 목회적 적용’, 정호욱 목사 ‘일대일사역의 영향력 및 방향성 진단과 제안’, 노희태 목사 ‘어린이 신앙 성장과 어린이 일대일’, 황재명 목사 ‘일대일 제자양육 교재의 평가 및 개정 방향’을 주제로 강의했다.

김영옥 팀장(서빙고 일대일사역팀)은 “지난 31년 동안 진행되어 온 일대일사역을 평가하는 좋은 기회가 됐다”면서 “앞으로도 각 캠퍼스 일대일사역팀과 긴밀하게 협력하기를 소망한다”고 말했다.

/ 이소정 기자 s2868@onnuri.org

“열방에 성육신의 사건을 전하자”

TIM 창립 25주년 미래전략회의, 감사예배

두란노해외선교회(TIM)가 창립 25주년을 맞아 미래전략회의를 하고 감사예배를 드렸다. 지난달 25일부터 28일까지 Acts29비전빌리지에서 진행된 미래전략회의에는 김홍주 목사(2000선교본부장), 신현승 장로(선교분과위원장), 권역대표선교사, 10년 이상 헌신한 선교사 등

110여 명이 참석했다.

미래전략회의에서는 변화하는 선교 현장에 발맞추기 위한 ‘전략팀 활성화’를 위한 선교사들의 역할, ‘TIM 교회개혁 방향과 교회개혁 사역의 분포 현황’, ‘선교사 사역 능력 개발’ 등을 주제로 회의와 토론이 이어졌다.

두란노해외선교회 창립 25주년 감사예배는 9월 28일 서빙고 온누리교회 두란노홀에서 드렸다. 이날 감사예배에는 이재훈 담임목사, 도육한 목사, 조용중 선교사(KWMA 총장), 권역별 선교사 등 304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이재훈 담임목사는 “선교는 일어나고, 되어 지고, 나타난다”면서 “겸손하고, 낮아지고, 때로는 희생하면서 열방에 성육신 사건을 전하자”고 권면했다.

사랑챔버 희망 콘서트 개최

10월 10일 오후 8시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자폐 및 지적발달장애인으로 구성된 온누리사랑챔버오케스트라(이하 사랑챔버)가 10월 10일 오후 8시 예술의전당 콘서트홀에서 희망 콘서트를 개최한다. 모스트리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와 함께하는 이번 콘서트에서 사랑챔버는 ‘G선상의 아리아’, ‘에델바이스’, ‘You raise

me up’ 등을 연주한다. 이번 연주회에서는 사랑챔버 단원들의 아버지들도 함께 무대에 올라 합창과 수화를 선보일 예정이다. 콘서트 티켓은 오늘(10월 1일) 서빙고 온누리교회 로비에서 판매한다.

문의: 02-581-5404

/ 정현주 기자 joo@onnuri.org

장애인 간증집회 ‘모세의 기적’

오늘(1일) 오전 11시 부천 온누리교회 기쁨홀에서 장애인 간증집회 ‘모세의 기적’이 열린다. 간증집회에는 박모세 형제와 그의 어머니 조영애 집사가 초대됐다. 박모세 형제는 뇌를 90%이상 절제하고도 기적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장애인이다. 찬양사역자, 간증자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장애아동을 둔 부모나 가족, 성도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일터신학 컨퍼런스 개최

햇빛트리나티신학대학원대학교가 ‘리더십의 정수: 영향력의 신학과 영성’을 주제로 일터신학 컨퍼런스를 개최한다. 10월 14일(토)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 16일(월)~19일(목) 오후 6시 30분부터 오후 9시 30분, 21일(토)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햇빛트리나티신학대학원대학교 하용조홀에서 진행된다.

성경적인 일터신학을 정립하고 크리스천 리더십을 세우기를 원하

는 성도라면 누구나 참석할 수 있다. 신청은 온라인(goo.gl/i3tC9v)이나 현장에서 신청하면 된다. 수강료는 무료다.

강사는 Paul Stevens(캐나다 리젠트칼리지 명예교수), Dr. Clive Lim(싱가폴 사업가), Dr. Jewel Hyun(미국 시애틀 바케대학교 교수), Dr. Jung-Sook Lee(햇빛트리나티신학대학원대학교 총장)이다.

문의: 010-9833-9358

45기 온누리젊은부부학교 수료 간증



/ 김정환, 배은영 부부

사랑만 하며 살기에도 짧은 인생

온누리젊은부부학교(이하 젊은부부학교)에 들어서던 첫날이 생각난다. 단정한 옷차림으로 조원들을 기다리는 조장님의 모습이 인상 깊었다. 아내의 손에 이끌려 마지못해 참석을 했던 나에게 조장님은 탕자의 아버지처럼 느껴졌다. 젊은부부학교는 다시 돌아온 탕자를 따뜻하게 받아주는 집 같았다. 젊은부부학교를 통해 나와 아내는 서로를 더욱 깊이 알아가고, 이해할 수 있었다.

첫날 강의는 결혼의 목적과 이유에 대해 나누었다. 나는 “서로 이용해 먹으려고 결혼한 것”이라는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쓰름했다. 아내를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지금은 가정의 주도권을 차지하기 위해 싸우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마치 죄수들처럼 먼저 양보하고, 자신을 내려놓는 것에 대해 눈치만 보고 있었다. 강의를 들으면서 ‘나는 외롭고, 힘들지라도 아내만 행복하면 된다는 마음으로 대했더라면 더 좋았을 텐데’라는 후회가 밀려왔다. 특히 “사랑만 하며 살기에도 참 짧은 인생”이라는 목사님 말씀이 가장 마음 깊이 와 닿았다.

내적치유 강의에서는 ‘조해리의 창’ 이론을 배웠다. 나도 모르고, 타인도 모르는 ‘미지의 창’이 존재한다는 것이 새로웠다. 또한 책 <5

가지 사랑의 언어>를 읽고 나와 아내가 사랑을 느끼는 순간에 대해서도 깊이 알게 되었다. 과거 모습을 회상하며 서로를 이해하는 시간도 가졌다.

“오 사람아, 무엇이 좋은지 이미 그분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여호와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은 공의에 맞게 행동하고 긍휼을 사랑하며 겸손히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다”(미 6:8).

이 말씀은 지난 날 내 모습을 돌아보게 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행하지 못하는 모습과 아내가 기뻐하고, 행복해 하는 일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행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 그려졌기 때문이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말씀처럼 알고 깨닫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젊은부부학교에서 배운 것을 행할 수 있기를 소망한다.

우리 부부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신 조장님 내외분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해 주시는 스태프들, 아이들을 맡기고 강의를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신 자녀부 선생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젊은부부학교를 통해 많은 가정들이 회복되는 역사가 넘쳐나기를 기도한다.

파워임팩트 수료 간증



/ 최주영 성도(양재 파워웨이브)

엄마인 내가 먼저 변했다

우리 집은 사랑하는 남편, 갱년기를 코앞에 둔 엄마인 나, 재수하는 첫째와 사춘기를 심하게 앓고 있는 중3 둘째까지 네 식구다. 둘째는 작년에 가족들 앞에서 “사춘기 중2랑 수험생 고3이랑 갱년기 엄마랑 누가 이기는지 보자”며 선전포고를 했다. 사춘기 중2가 승리하였고 엄마인 나의 마음은 만신창이가 됐다.

승자인 둘째는 기고만장한 중3이 되었다. 더 지독한 사춘기로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되었다. 엄마인 나도 같이 힘든 하루하루를 견뎌내고 있었다. 그즈음 교회에서 ‘파워임팩트’라는 청소년·부모 회복 프로그램을 홍보하는 포스터를 봤다. 너무 신중하고 싶었지만 남편이 순장으로 섬기고 있는 순애배 시간과 같은 시간대에 진행되었기에 참석이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했다.

시간이 흐르고 둘째는 친구들과의 관계 때문에 더 힘들어하는 것 같았다. 둘째와 가족들 사이는 주체하지 못할 정도로 나빠졌다. 문제를 해결하고 싶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방법을 찾다가 이전에 보았던 파워임팩트를 떠올렸다. 둘째는 본인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파워임팩트에 가지 않겠다고 했다. 나는 “엄마가 부족해서 좋은 엄마가 되려고 한

다”며 시작해보자고 설득했다. 순식구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파워임팩트 팀장님께도 상황을 말씀드리고 최선을 다해 부모교육에 참여하기로 결정하고 등록했다.

둘째는 파워임팩트 강의와 수련회, 성격검사 와 아웃리치를 통해서 조금씩 회복되기 시작했다. 파워임팩트를 섬기는 전도사님, 교사, 친구, 멘토들을 통해서 자신이 사랑받는 존재임을 알게 되었다. 나 또한 부모교육을 받으면서 스스로를 돌아보고, 둘째를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파워임팩트 강의를 들으면서 둘째 아이의 성격이 나와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다름으로 인한 아이의 언행이나 사고 방식을 조금은 이해할 수 있었다. 파워임팩트는 나를 붙들어주고 있는 하나의 버팀목 같았다. 파워임팩트에 참여하면서 엄마인 내가 먼저 변할 수 있었다. 아이를 이해했더니 믿을 수 있게 되었다. 내 욕심과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다시 설 수 있었다.

아직도 갈 길이 멀다.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도 아니다. 여전히 문제가 있고 걱정이 되고 불안하지만 파워임팩트를 통해 아이를 이해하게 되고, 둘째도 나를 조금씩 이해하고 있는 중이다.

일대일 제자양육 수료 간증



/ 박유진 성도(동대문중앙공동체)

세 가지 축복

일대일 제자양육은 내 인생에 가장 큰 축복의 시작이었다. 일대일 제자양육이 끝날 때 내 입에서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끊이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내게 세 가지 축복을 주셨다.

첫 번째 축복은 QT가 중요한 하루 일과가 되었다. 나는 QT를 거의 하지 않았었다. 마음 내킬 때 하거나 읽고 싶은 본문을 잠깐 보는 정도였다. 매일 정해진 본문을 읽는 것이 지루했다. QT말씀이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인지 의문이 들기도 했다. 하지만 일대일 제자양육을 하는 동안 QT를 꾸준히 하다 보니 말씀을 통해 나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 내가 직접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QT하는 재미에 빠졌다. 이제는 QT를 하루라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거저 주어진 아주 맛있는 식사자리를 거절해 버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

두 번째 축복은 기독교 교리를 정립하게 된 것이다.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진리를 확실하게 알게 되었다. 나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성경 지식이 부족했다. 하나님에 대한 기본적인 질문에도 대답을 제대로 하지

못했을 정도다. 하지만 일대일 제자양육 과정을 통해 필요한 성경 지식을 체계적으로 배우면서 나의 신앙을 굳건하게 세울 수 있었다.

세 번째 축복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기로 결정한 것이다. 일대일 제자양육을 하는 동안 나는 세례도 받았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기로 작정했다. 또한 온누리 교회에서 예배드리면서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 시작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일대일 제자양육을 통해 나에게 주신 축복이자 선물이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경험했다. 내 인생이 완전히 새롭게 바뀌었다. 일대일 제자양육은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시간이었다. 앞으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통로로 쓰임 받고 싶다. 하나님의 자녀이자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고 싶다. 늘 나와 함께하시고, 나를 통해 일하실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한다.

유아세례 간증



/ 아이: 정승윤, 부: 정용호, 모: 박수진

가장 큰 유산

나는 믿음의 가정에서 자랐다. 큰 의심 없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었다. 그리고 성인이 되어 하나님을 뜨겁게 만난 신랑과 믿음 안에서 가정을 꾸리게 되었다. 그런데 결혼한 지 1년이 지나도록 아기 소식이 없었다. 기다림과 실망이 반복되고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하며 간구하고 있었다. 그때 승윤이가 우리 부부에 왔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다. 하나님께 세상에서 가장 큰 선물을 주셔서 감사하다는 고백을 일기장에 쓴지 몇 주 되지 않아 입덧이 시작되었다. 그러면서 그 놀라운 감사가 한순간에 사라지는 경험을 했다.

임신기간 동안 예쁘고 건강한 아이를 출산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다. 그토록 기다리던 딸 승윤이를 작년 2월 16일 함박눈이 내리던 날 만나게 되었다. 아이를 품에 안고 집에 돌아오면서 감사한 마음이 벅차올랐다. 그런데 잠 못 이루는 날들이 계속되고 이유를 알 수 없는 아이의 울음에 지쳐갔다. 다시 한 번 감사가 사라지는 경험을 했다.

아이를 키우는 일이 생각처럼 아름답고 행복하지만은 않았다. 처음 해보는 희생과 수고

를 감당하기에 나는 너무 낙담하고 부족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가장 소중한 존재가 생기고, 그 연약한 존재를 위해 끝없는 관심과 사랑을 쏟게 되었다. 그만큼 아이에 대한 걱정과 염려가 나를 사로잡는 시간도 많았다. 과연 내가 잘하고 있는지 불안하기도 했다.

이 모든 불안과 염려가 내 안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기보다 어느 순간 육아서적과 인터넷 정보를 의존하고 있다는 것을 자각했기 때문이다. 더 잘 키우고, 더 잘 먹이기 위해 조바심을 내고 있는 모습이 어리석다는 생각이 들었다. 주권을 하나님께 드리고 주 안에서 부부가 더욱 성장해야 한다는 것을 잊고 있었다.

앞으로 승윤이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자랄 수 있도록 양육하고,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구할 것이다. 이것이 우리 부부가 승윤이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유산이며 도움이 라고 생각한다. 승윤이가 하나님 뜻에 합당한 자녀로서 자랄 수 있기를 기도한다. 또한 승윤이가 하나님의 소유임을 고백한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빠르게 양육할 것이다.

복지칼럼

영원한 행복

이성희 관장
(울산노인종합복지관)

울산노인종합복지관이 ‘행복한 어르신’을 꿈꾸며 달려온 지 15년이 넘었다. 초창기에는 60세 된 어르신들이 노인복지관을 이용하는 것이 자연스러웠다. 지금은 70세가 넘어 노인복지관 이용하기를 주저하는 어르신이 많다. 수명이 연장되면서 노인이라는 자기인식이 늦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 사회는 고령화 사회를 맞이하며 부양부담을 염려하고 있다. 하나님도 같은 염려를 하고 계실까.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어르신들이 회개하고 구원받을 기회를 연장하고, 구원받은 어르신에게는 전도할 시간을 늘려주신 것 아닐까.

나이와 무관하게 누구나 행복하기를 원한다. 세상에 사는 어르신들은 행복(幸福)을 한자 뜻 그대로 ‘밭(田)에 콩 한(-) 쪽 입(口)에 먹을 것이 보이니(示) 다행이다’라는 차원에서 이해한다. 그 정도면 행복이라고 여긴다. 그래서 복지관에서 펼쳐지는 구제나눔 활동과 100여 가지 여가전용 프로그램이 어르신 행복의 필요충분조건이 된다. 불행하다고 느끼는 일부 어르신들이 있기는 하지만 노인복지관의 다양한 정신건강 프로그램은 어르신들이 행복하다고 말하기에 충분한 양의 서비스를 공급하고 있다.

고령화 사회가 진행되면서 베이비부머(baby boomer)가 시니어부머(senior boomer)로 다가오고 있다. 전후 출생하여 2세대 노인이 될 베이비부머는 해방 이전 출생한 1세대 노인과는 또 다른 세대이다. 행복추구의 조건이 다르다. 낮은 수준의 콩 한쪽이 아니라 높은 수준의 소고기를 원하는 세대이다. 캠핑카를 타고 90일 동안 미국 50개주를 횡단한 시니어부머가 있다. 그 시니어부머는 60~70대는 중장년이라는 인식 속에서 4차 혁명 인공지능 시대를 살아보고자 하는 세대이다. 빠른 은퇴와 40~50년의 긴

노년기를 보내야 하는 시니어부머는 새로운 기술을 배워 평생취업을 준비하거나 베이비부머의 문화산업 트렌드를 만들어 나가고 있다.

1세대 노인으로 가득 찬 노인복지관에서 2세대 노인인 시니어부머들에게 제시해야 할 필요충분한 행복이 무엇일까. 고민이 된다. 학습과 문화여가의 기회가 절대적으로 부족했던 1세대 노인에게 제공된 2, 3세대 주도의 풍성한 복지서비스와는 달리 1, 2세대 노인에게 제시해야 할 3세대 주도의 복지서비스는 취약해 보인다. 또한 저출산시대 청년세대들이 자기 삶의 기반조성을 넘어 노인까지 부양해야 하는 것이 불안해 보인다. 세상은 세대 간 형평성을 따져 보기도 하고, 기초연금, 청년수당, 아동수당 등 사회적 자원배분이라는 어려운 숙제를 풀려고 애를 쓴다. 그러나 세대가 살아온 격차도 다르고, 향유하는 문화와 행복이라고 느끼는 담론도 다르기 때문에 모든 세대의 행복을 동일하게 이끌기가 쉽지 않다. 과연 모든 세대가 공통적으로 찾아가야 할 행복이 무엇일까?

아주 오래 전에 하나님을 아는 민족이 동쪽으로 이주해서 상형문자를 형성할 때, 행복의 복(福)은 ‘이 땅(田)에 유일하신(-) 하나님 말씀(口)이 드러나는(示) 것’이라고 정의했다. 행복은 하나님 말씀 안에 있다. 한 개인이 비교당하지 않고 구별된 존재로 존귀하듯이 세대도 세대 간 비교를 당하지 않고 구별된 세대로 하나님 말씀 안에 있을 때 행복한 것이다.

한 조사에 의하면 베이비부머는 여행, 여가활동, 종교 활동에서 가장 큰 행복을 느낀다고 한다. 여행이나 여가활동이 주는 상대적인 충족감은 그렇다 치고 하나님을 아는 절대적 지식에서 참된 행복이 있음을 말하고 있어 희망이 보인다.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는 복지는 유한한 자원배분 속에서 야기되는 세대갈등 구조를 뛰어넘는다. 수명이 연장된 고령화 사회의 유한한 행복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들의 영원한 행복을 추구해야 한다. 울산노인복지관에는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는 복지를 선포할 1, 2, 3세대 주역들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선교칼럼

코리안드림이 헤븐드림으로

이광수 선교사
(평택M센터)

경기도 평택에는 약 2만 명(등록 인구 기준)의 이주민들이 살고 있다. 안성과 천안, 오산 등 인근 도시를 포함하면 약 6만 명 이상의 이주민들이 살고 있다. ‘이주민 광역시’라고 해도 부족하지 않은데 그들을 섬기는 곳은 몇 개의 다문화 센터와 복지관, 10여 개의 이주민교회가 전부인 실정이다. 대부분의 이주민들은 복지와 복음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방치되어 있다.

평택M센터는 사회적 약자인 이주민들이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도와주고 있다. 체류지원 확보, 의료혜택 등을 지원함으로써 그들이 하나님 안에서 존귀한 존재임을 자각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육적으로 영적으로 건강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맡겨진 역할을 감당해 나갈 것이다.

평택M센터 개관 과정은 처음부터 끝까지 간증거리다. 처음에는 평택 온누리교회 몽골어예배의 예배처소 마련을 위해 움직이다가 평택M센터 설립으로 확장되었다. 예정보다 앞당겨 개관하면서 예산과 인력 등 많은 것들이 준비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지만 걱정 없었다. 순차적으로 결핍을 채워나가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미 평택M센터를 준비하고 계신 선교의 하나님(Missio Dei)을 더욱 깊이 만날 수 있었다. 우리 모두는 기대하고 있고, 꿈꾸며 기도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평택M센터를 통해 이루실 선한 일들을 말이다.

평택 인근 지역에 거주하는 수많은 이주민들의 영적, 육체적, 사회적, 정서적 필요

를 모두 채워줄 수는 없지만 적어도 나그네 된 그들에게 따뜻한 공간이 되어주고 싶다. 이주민들이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공간으로 자리 잡았으면 좋겠다. 하나님 안에서 이웃이자 형제 된 그들이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도록 문턱을 없앨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충만하게 경험하고, 경배와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한 분만을 예배하는 생명력 있는 센터로 쓰임받기를 기도하고 있다. 지금은 몽골어예배 하나뿐이지만 앞으로 베트남, 러시아, 네팔, 태국, 캄보디아, 스리랑카 등 열방이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로 쓰임받기를 기대한다. 이를 위해서 법률 상담, 의료서비스, 한국어 강좌, 탁구 교실, 요리교실 등과 같은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하면서 접착점을 만들어 나갈 것이다. 말씀 안에서 동고동락하며 믿음의 추억을 만들어 가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한다.

이주민들이 코리안드림(Korean Dream)보다 헤븐드림(Heaven Dream)을 꿈꾸도록 할 것이다. 조국에 천국소망을 심는 리더들을 양육하기 위한 사역을 강화시켜 나갈 것이다. 지금은 새벽QT, 기도모임(화, 수, 목, 금), 일대일 제자양육을 진행하고 있다. 이주민들이 복음을 빠르게 이해하고, 건강한 예배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도울 것이다. 이주민들이 복음의 유일성에 대한 확신을 갖고, 조국의 영적 현실을 바라본다면 하나님의 심정을 깨닫게 되고, 조국을 섬기는 제자의 삶을 살아낼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한다.

이주민사역을 감당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탁월한 전략이나 시설이 아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친히 보여 주셨던 예수님의 마음이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스승이 아니라 아버지가 되라고 하셨다. 아버지의 마음 없이는 변화도, 회복도, 일의 성취도 없음을 고백하며 아름다운 섬김의 여정을 떠나려고 한다. 중보기도를 부탁한다.

목회칼럼

박철웅 목사
(장애인사역본부장)

장애인 자녀를 둔 부모들이 무릎 꿇고 특수학교 설립을 호소하는 뉴스가 세간에 알려지면서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되는 듯하다. 급기야 서울의 모든 구마다 특수학교를 설립하겠다는 반가운 소식이 들렸다. 한 발자국을 땀 느낌이다. 물론 아직도 선진국에 비하면 가야 할 길음이 많이 남아있다. 그러나 절박했던 처지였던지라 이마저도 너무나 반갑기만 하다. 사람들의 관심이 변화를 이끌어 낸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경험했다. 이런 점에서 ‘사랑’의 반대는 ‘미움’이 아니라 ‘무관심’이라고 말하는 것은 충분히 통찰력 있는 지적이다. 그렇다. 무관심이 가장 무서운 적이다.

사랑은 좋은 말이지만 구체적으로 변화를 일으키기에는 너무 광범위한 표현이다. 그러나 지속적인 관심은 결국 변화를 이끌어낸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장애는 장애(障礙)가 아니라 장애(長愛; 오랫동안 사랑해 주는 것)’라고 정의한 사랑부 부모님들의 말을 빌려 장애인에 대해 사랑한다는 말 대신 오랫동안 관심을 가져 달라고 부탁하고 싶다. 그만큼 장애인 가족에게는 사랑한다는 말보다 환경의 변화가 절실하기 때문이다.

‘사람은 나면 서울로 보내고 말은 나면 제주로 보내라’는 우리 속담이 있다. 이 말은 사람이 제대로 성공하기 위해서 그에 맞는 환경에서 생활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굳이 ‘맹모삼전지교’를 언급하지 않아도 적절한 환경이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이 거대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바로 그 환경을 변화시키는 것이 사람들의 지속적인 관심이다.

관심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것을 보는 것 같지만 보고 싶어 하는 것을 보는 경향이 강하다. 어떤 분이 이렇게 말했다.

“오랫동안 몰았던 H자동차를 처분하고 K자동차로 바꿨더니 숨어있던 K사 차들이 한꺼번에 나왔는지 K사 자동차가 그렇게 많은 줄 그때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갑자기 차종이 많아진 것이 아니라 관심을 가지니까 눈이 열린 것이다. 우리의 눈과 마음은 관심을 통해 열리기 때문이다.

처음부터 장애인에 마음이 열리는 성인(聖人)은 보기 힘들다. 관심을 통해 눈이 열리고 그 다음에 마음이 열리는 것이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마음이 열린다는 것은 애정을 갖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관심이 있어서 계속 보다가 보면 때로는 보고 싶지 않은 것을 볼 때도 있다. 빛이 있으면 당연히 그림자가 생기듯이 말이다. 사역을 통해 기쁨만 경험하는 것이 아니

라 아픔과 어려움도 경험하게 된다. 그러면서 생기는 자연스런 감정이 애정이다. 애정이란 공감하는 것이다. 애정이 있으면 어려움이 있어도 극복할 수 있다. 관심은 결국 우리를 부르심의 자리로 이끈다.

하나님이 이사를 부르셨을 때 가장 큰 어려움은 사역의 전망이 없다는 것이었다.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는 백성들이었지만(사 6:9) 이사야는 하나님께 응답했다. 부르심이기 때문이다. 이 모든 것이 결국 관심을 일으키는 변화들이다. 그래서 장애인사역은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사랑채비가 18년 동안 설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여러 선생님들과 교회, 성도들의 지속적인 관심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이번 10월 10일 예술의전당에서 열리는 사랑채비 희망 콘서트에 많은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다. 놀라운 변화를 기대해 본다.

서빙고

02. 793. 9686

주일예배

1부 오전 6:50 분당
2부 오전 9:00 분당
3부 오전 11:30 분당
4부 오후 1:50 분당
5부 (십자가의 길) 오후 4시 경찬홀
6부 (열린새신자예배) 오후 7시 분당
7부 9시에 뜨는 별 오후 9시 분당

1부 새벽기도회

매주 월~토 오전 5:20 분당

2부 새벽기도회

매주 월~토 오전 6:30 분당

월요 어노인팅집회

매주 월요일 오후 7:00 비전홀

화요Holy Impact 집회

매주 화요일 오후 7:30 분당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요일 오전 10:30 분당

수요목양예배

매주 수요일 오후 7:30 분당

목요경배와찬양

매주 목요일 오후 6:30 분당

목요선교집회

매주 목요일 오후 7:30 비전홀

금요회복예배

매주 금요일 오후 7:20 분당

금요철야예배

매주 금요일 오후 9:50 분당

한마음정신회복예배

담당: 권웅갑 목사

시간: 매 주일 오전 11:20 선교관 101호

문의: 임선양 팀장(010-9782-7733)

S브릿지 예배

내용: 만33~44세 미혼 청년예배

주일 오후 1:30 두란노홀

문의: 송현정(010-9166-8015)

장애인 공동체 누리사랑부예배

매 주일 오전 11:00 선교관 콘서트를

문의: 박범식 팀장 (010-5225-1519)

야베스맘예배(사별자모임)

매주 화요일 오후 6:00~ 8:30 선교관 403호

문의: 윤명자 팀장 (010-3217-9593)

문화 미디어 중보기도예배

매주 화요일 오후 8:00~9:30 콘서트를

문의: 전도본부 (02-3215-3214)

사랑부예배

대상: 발달장애청소년

시간: 매주일 오전 9:00 선교관 콘서트를

문의: 김종영 목사(010-2890-1707)

예수사랑부예배(발달장애 청장년공동체)

매주일 오전 11:20 서빙고 한동홀

문의: 김영선 팀장(010-3474-7635)

일본어예배

매주일 오후 2:00 선교관 한동홀

문의: 김상호 팀장(010-9349-5631)

영어예배

매주일 오후 4:00 분당

문의: 02-3215-3685

중국어예배

매주일 13:30 경찬홀

문의: 김창무 집사(010-7917-8008)

온누리M미션 외국어예배

안산 - 주일예배

러시아 예배 10:00 안산M센터 Onnuri hall

캄보디아 예배 10:00 안산M센터 Peace 302

미얀마 예배 10:30 안산M센터 Joy 202

몽골어 예배 10:30 안산M센터 Joy 201

네팔 예배 10:30 안산M센터 Peace 303

열방 예배 09:00/11:00 안산M센터 Manna hall

태국 예배 14:00 안산M센터 Peace 303

스리랑카 예배 11:30 안산M센터 Peace 304

베트남 예배 11:00 안산M센터 Peace 305

필리핀 예배 10:30 안산M센터 Peace 301

다문화예뎀 10:30 안산M센터 Dream Kids Room

다문화 꿈방 11:00 안산M센터 StarTree

다문화파워웨이브 14:00 안산M센터 StarTree

서빙고

몽골어 예배 14:00 선교관 401호

러시아 예배 14:00 선교관 301호

네팔 예배 14:30 선교관 402호

아랍 예배 14:00 본관 B102호

매일 첫째주 선교관 402호

다문화꿈방예배 15:00 선교관 403호

페르시아어예배 13:30 본관5층 미션다락방

인연 몽골어 예배 13:00 프리스페이스3층

중국어 예배 11:30 프리스페이스3층

평택 몽골어 예배 11:30 평택 온누리교회

화성M센터 우즈베크 모임 14:00

김포M센터 캄보디아 예배 11:00

DRS 이혼자 정기예배

일시: 매 주 토 15:30~19:00 신관401호

문의: 김재영 팀장(010-2539-5665),

나지원 총무(010-3489-2080)

이스라엘을 위한 중보기도 모임

서빙고: 매 주 토 오전8:00 시온홀

양재: 매 주 토 오전8:00 JDS홀

대학청년부를 위한 어머니 기도모임

매주 금요일 10:00~12:30 본관 B102호

문의: 정혜경(010-8562-2133)

군 선교와 군입대 자녀를 위한 기도모임

시간: 매주 화요일 오후 7:30

장소: 서빙고 선교관 101호

문의: 02-3215-3214

마리아행전 중보기도모임

나라와 민족 위해 기도하는 기도부흥운동

일시: 매주 수요일 오후 1:00~2:30

장소: 신관 3층 드림홀

문의: 여성사역 (3215-3227)

북한중보기도모임 안내

일시: 매주 월요일 오후 7시30분~9시

장소: 선교관 403호

문의: 송웅수 형제(010-8591-8236)

병원사역예배/환우기도모임

시간: 매주 수요일 오후12:15~2:30

장소: 서빙고 신관 301호

대상: 봉사자 및 환우 중보 요청자

문의: 이재신 팀장(010-4753-3150)

Acts29비전빌리지 열방예배

-매주 월~금/오전 10시30분-12시30분

-서빙고출발 09:00, 양재출발 09:30

-Acts29비전빌리지(양지)출발 15:00

한터 공동체 예배

탈북민사역에 관심있는 분들을 위한 예배

시간: 매주 오전 10시

장소: 한누리 본부(지하철 9호선 가양역

6번출구, 투썸플레이스 건물 6층)

TIM MK 중보기도 모임

시간: 매월 셋째 월요일 오전 10시 30분

장소: 서빙고 온누리교회 선교관 302호

문의: 김동희 간사(070-4464-8119)

차세대 목요어머니기도회

개강: 9월 7일(목) 오전 10시 30분

서빙고: 신관 4층 누리를

양재: 본관 지하 3층 JDS홀

일산: 일산공동체 비전센터(일산호수병원 4층)

온누리가족 나무동선(공원모역) 잔여

기 계약자 모집

자격조건: 온누리교회 등록교인만 계약이

가능(계약자의 가족까지 안치)

동산위치: (재)충효공원(강원도 원주시

문막읍 궁촌리 산 152-2)

사용안내: 매장방식의 납골과, 봉분에 의한

매장

잔여수량(기): 80기

문의: 02-3215-3178-9

온누리교회 재산종합(파키지)보험 입

찰공고

기간: 18년 1월 1일~19년 1월 1일(추가로

최대 1년까지 연장할 수 있음)

보험대상: 48건

자격: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784호 제26

조 각 호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대한

손해보험협회 가입된 정회원 손해보

험사, 지급액비율 180% 이상인 업체

문의: 02-3215-3134

두란노 iOS 앱개발자 채용

자격: iOS 개발 경험 1년 이상, Objective-

C 또는 swift 개발 가능자, JQuery,

Javascript, Database 경험자

지원: <http://www.duranno.com/recruit>

TP32기 단기선교사 훈련생 모집

훈련기간: 18년 1월 8일~2월2일(금)4주간

접수: 12월11일(월)까지

신청: <http://www.visionvillage.org>

문의: 031-331-8182

두란노 서빙고점 전품목 할인

날짜: 10월 1일

내용: 전품목 할인(대중교통 이용 주일 행

사 기념)

*게시판 광고마감 목요일 오후 4시

양재

02. 570. 7430

주일예배(사랑홀)

1부 오전 6:50 2부 오전 9:00

3부(열린예배) 11:30 4부 오후 1:50

5부(대학청년부 여호수아) 오후 4:00

6부(열린새신자예배) 오후 7:00

7부 9시에 뜨는 별 오후 9:00

1부 새벽기도회

매주 월~토 오전 5:20 사랑홀

2부 새벽기도회

매주 월~토 오전 6:30 기쁨홀

새신자를 위한 열린예배

주일 오후 7:00 사랑홀

월요QT예배

매주 월요일 오후 7:30 화평홀

화요성령집회

매주 화 오후 7:30 기쁨홀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요일 오전 10:30 사랑홀

수요예배

일시: 매주 수요일 오후 7:30 사랑홀

목요찬양예배

일시: 매주 목요일 오후7:50 기쁨홀

금요철야예배

매주 금 오후 11:00 사랑홀

브릿지33+ 예배

33세~44세 싱글 남녀를 위한 공동체

매주 주일 오후 2:50, 하용조 기념홀

문의: 최문환 팀장(010-5157-2009)

한마음 정신 회복 예배 안내

매주 주일 오전 11:20 트리니티 강의동

Point5 예배

주일 오전 11:30 하용조 기념홀

차세대예배(Point5 영어와 한국

어로 드리는 예배)

Jesus Toddler 24~48개월(주기철채플실)

Jesus Rock 5세~초등1(충성홀 9:00)

Jesus Crew 초등2~초등6(JDS홀 9:00)

Jesus Vine 중등1~중등3(비전홀A 9:00)

도곡교육관 주일 성인예배

도곡1관 사랑홀(숙명여고 대강당)

1부 오전9시, 2부 오전 11시 30분

도곡 차세대 9:00 예배

영아부: 도곡1관 꿈터(B동 1층)

유치부: 도곡1관 꿈아이홀(B동 1층)

유년부: 도곡1관 충성홀(B동 2층)

초등부: 도곡1관 화평홀(B동 2층)

중등부: 도곡1관 온유홀(A동 2층)

고등부: 도곡1관 기쁨홀(A동 3층)

도곡 차세대 11:30 예배

예꿈: 도곡1관 꿈터(B동 1층)

꿈땅: 도곡1관 충성홀(B동 2층)

도곡교육관 주일 11:00 예배(영어)

Adult Service: 도곡2관(중대부고 강당)

도곡교육관 11:00 영어 차세대예배

Hope Zone(Newborn~Age4)

: 도곡2관 (중대부고 5층)

Love Zone(Age5~Grades2)

: 도곡2관 (중대부고 5층)

Joy Zone(Grades3~6)

: 도곡2관 (중대부고 5층)

OEM Youth(Grade7~12)

: 도곡1관 기쁨홀(A동 3층)

도곡교육관 주일 오후 2:00 예배

(청년부)

갈렐 청년부 예배: 도곡2관(중대부고5층)

사랑부 예배(장애 학생)

주일 오전 9:00 비전홀B

문의: 이루주 전도사(010-9150-5190)

프랑스어 예배

설교: Jean-Martin Wehrey

일시: 주일 오후 2:00

장소: 양재 강의동 304호

문의: 010-9108-8383 *통역 지원

하나공동체 예배

탈북민과 탈북민 사역에 관심 있는 분

들을 위한 공동체

매주일 14:00 양재 JDS홀

마리아행전 주중기도모임

대상: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기

원하는 모든 여성

일시: 매주 수요일 13시~14시30분

장소: 양재 화평홀

문의: 02-570-7277

병원사역예배와 환우기도모임

장소: 양재 비전홀A

시간: 매주 수요일 10:30-14:00

문의: 김정숙 팀장(010-4946-3832)

환우중보 및 심방요청을 받음

살롱기도회

대상: 나라와 통일과 평화를 위해 기

도하기 원하는 모든 성도

일시: 매주 월 19

CGNTV

2017 CGNTV

추석특집 프로그램

온 가족을 위한 CGNTV 추석특집 프로그램과 함께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명절 되시기 바랍니다

해외 다큐 <존 번연의 순례자의 길>

고난 속에서도 계속된 복음 전파.
감옥에 들어가서도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며 <천로역정>을 집필한 존 번연의
삶을 따라가 봅니다.

방송 : 10/4(수) 오후 3시 30분



CGNTV 맞춤특강 <나침반>

<나침반>이 준비한 명절증후군 솔루션을 만나보세요.

<행복한 명절 만들기> 편

강사 : 전효실 사모(커넥션교회)

방송 : 10/2(월) 오전 11시



<명절에 싸우지 않는 부부 대화법> 편

강사 : 신언혁 원장(센시아카데미)

방송 : 10/3(화) 오전 11시



신앙생활연구소 <유탄>

온 가족이 함께하는 <유탄 스페셜> 편.
가족전도, 교육 등 공감할 만한 고민들을
나누고 신앙 안에서 화목한 가정을 세워
가는 방법을 알아봅니다.

방송 : 10/3(화) 오전 11시 30분



다방향소통특강쇼 <나침반>

개그우먼 이성미가 이 땅의 청년들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

지난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진정한 '행복'에 대해 전합니다.

방송 : 10/6(금) 오전 11시



나는야 주의 어린이

'진도 북춤으로 만나는 위십' '종이공작으로
한복 만들기' 등 재미있고 흥미로운
코너들로 어린이들을 찾아갑니다.

방송 : 10/6(금) 오후 5시 20분

